



장학빌딩 임대수입으로 주는 역대 최대 규모 1학기 장학금 453명에 12억3천여 만원 전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2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학부생 2백85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39명 등 총 3백24명에게 9억5백63만8천

원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본회가 모교 재학생 1백69명에게 4억8천7백32만1천5백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모교 재학생 1백29명에게 3억2천9백80만9천원을 수여함으로써 2012년 1학기 장학금은 총 4백53명에게 12억3천5백44만7천원이 지급됐다. (관련기사 3~5면)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6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 ◆일 시 : 2012년 3월 16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
 - ① 제1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 사업계획 보고
 - ③ 임원 개선
 - ④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 없음

※ 한정된 좌석(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6차·관악회 113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출추

여야 정치권이 '선진화'라는 국가 비전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경제 민주화'를 합창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도 꽃피우지 못한 선진화를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선진화가 李明博정부의 퇴장과 운명을 함께 할 절치난 유행상품인가.

선진화는 원래 李明博브랜드가 아니다. 아무리 정치가 건 망증을 먹고사는 것이라 해도 한 가지 되살릴 기억이 있다. 2005년 초 盧武鉉대통령과 한나라당 朴槿惠대표가 선진화를 둘러싸고 '저작권' 신경전을 벌였다. 盧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차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 한국'이라는 자신의 새 국정지표를 강조하자, 차대표는 '국가 선진화 비전은 이미 우리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이라고 했고, 이에 盧대통령은 '로열티를 주고 사겠다'고 응수했다.

그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했던 親盧그룹이 지금 정권 탈환을 외치는 민주통합당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했고, 차대표는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들은 진정한 국가 선진화를 위한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정치주체들이다.

선진화를 박물관에 처넣을 수 없는 이유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은 전후 신생국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기적의 나라'지만 아직 선진국 조건의 달성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의식 관행 제도의 선진화를 비롯해 사회 문화적으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많다.

복지 확충과 경제 민주화도 맹목적이어서 안 된다. 의식 관행 제도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진실로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선진화를 한 정권의 임기에 맞춰 내팽개쳐도 좋을 '쓸데없는 가치'쯤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무책임하다.

선진화와 함께 성장 그리고 애국까지 시대착오인양 폄하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들은 '뿌리 없이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환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迷妄의 시대엔 지성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데, 대학은 지금 어디 있는가. (裴仁俊논설위원)

지성의 역할 아쉬운 迷妄의 시대

느리나무광장

어느 지상과 방송사는 2012년 구호를 ‘通通 대한민국’이라고 내걸고 “‘소통’의 방송으로 대한민국을 통하게 한다”며 올 연초부터 채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소통의 부재에 처해 있고 소통의 위기가 심각한 것임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의 부재는 사회 갈등과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소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학내 소통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바깥사회와 적극 소통해야 하고, ‘소통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소통, 나아가 글로벌 소통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대 하마다 총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 소통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대학이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도쿄대는 최근 첨단시설을 갖춘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개관해 가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고의 지식정보 생산기관이자 인재양성 기관인 서울대, 그리고 법인화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서울대에 있어 ‘소통’의 현주소는 어떨까?

거대 조직의 신경 중추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소통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필자를 포함한 외부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예컨대 학내 조직 및 구성원들간 소통, 소통 교육, 대내외 홍보 그리고 미래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할 언론과 미디어 및 문화산업 인력 양성 등 소통과 관련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뜻있는 교수들은 “다양한 영역간의 정보교류, 공조, 융

안팎으로 소통하는 ‘통통 서울대’

鄭興寶

모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본보 논설위원



합, 통섭이 필수적임에도 학문적 소통과 협력은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상호 연결해 주는 채널망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소통과 관련한 다중적 기능을 수행할 이른바 ‘서울대 커뮤니케이션 허브(Communication Hub)’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커뮤니케이션 허브’는 학내 조직과 구성원들을 수평적, 쌍방향, 민주적으로 연결하는 소통 허브이자 소통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심점 역할을 하고, 서울대의 사회 기여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핵심적인 인프라 기능을 맡음으로써 서울대 전체를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효율화해 21세기형 선진화를 추동할 소통 기반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이 수년전부터 첨단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리소스를 투입해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커뮤니케이션 허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다.

때마침 이를 강하게 인식한 언론정보학과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 ‘커뮤니케이션 허브’ 건립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법인화 전환의 안착에도 도움될 ‘커뮤니케이션 허브’ 성공적 구축을 위해선 본부측의 아낌없는 뒷받침이 필요하고 서울대 구성원들의 지혜가 농축돼야 할 것이다.

관악시단

청보리밭에 오는 봄

孫海鎰(잡사67-75)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진눈깨비 날리던 겨울엔
생솔가지 군불 지핀
아랫목 뜨신 맛에 살았다

이불 훌청을 벗기듯
청보리밭 살얼음 녹이는
돌개울 물소리

비늘 돋친 바람에 실리는
썸바귀의 봄 몸살
은쟁기 보습에
뭉툭뭉툭 겨울이 잘려 나간다

젖은 나목의 가지마다
불을 켜는 눈망울들
오오오 기지개 켜는 벼들개지
夢精하는 들녘

내 이제 들로 나가
더운 피 흐르는 흙살을 보듬고
꽃씨를 뿌리리라.

동문칼럼

대학에서의 평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요즘 어느 대학에서 총장의 진퇴논란에 관해서서 대학의 평의위원회가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서울대학교 동문을 포함한 주변분들로부터 평의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라는 질문을 받는다.

평의위원회는 구미에서는 University senate 또는 Faculty senate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대학의회 또는 교수의회로 되고, 대학의 구성원 중 교수만 참여하는 경우를 Faculty senate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955년 정식으로 서울대학교 평의위원회가 발족했으나 학장회와의 기능중복 등의 이유로 그 기능이 제대로 살려지지 못했다. 鄭雲燦총장 재임시절인 2003년 8월 대학운영에서의 Shared Governance(지배의 공유구조) 중요성을 받아들여 평

의원수를 확대하고 보직교수를 제외시켜서 평의위원회가 기능이 강화돼 명실상부한 대

의기구로서 대학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화됐다.

2011년 말까지 평의위원회는 서울대학교동창회대표를 포함한 외부인사 13명, 교수평의원 58명, 직원 3명 등 총 74명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그 주요의결 사항은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주요 심의 사항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예산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2009년 9월 16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것은 평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중 중요한 한 예이다.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이사회가 총장 임명 및 법인의 예산결산 등을

의결하고, 대의기구인 평의위원회는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 방침 등을 의결하는 형태로 이사회와 평의위원회가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법안이 추진됐으나, 정부에서 최종안이 마련되면서 모든 의결권은 이사회로 집중되고 평의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하됐다.

2011년 대학법인에 관한 시행령 및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간신문에도 보도됐듯이, 대의기



朴鍾根
(전기공학69-73)
모교 평의위원회 의장

구인 평의위원회가 총장 및 이사회 선임과정, 교육·연구의 중요사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표출이 있었다. 이는 법령과 정관에서 대학운영의 의사결정권이 너무 총장 및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평의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강한 의사표시로 생각된다.

필자는 일본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 법인화 초기의 동경대 이사회는 다수의 외부인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법인화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외부인사는 2명 정도로 줄고 수명의 부총장을 포함한 다수의 학내인사로 구성되고,

대학의 평의위원회

그 기능도 확대해 집행간부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법인초기에는 일반재단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학문의 자율성을 담을 수 있는 동경대학 특유의 법인형태로 만들어 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의 유일한 대의기구인 평의위원회는 학내구성원의 의사와 전문성을 반영해, 서울대인이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대체해 가지고자 했던 독립 서울대학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을 계속 발전시켜, 서울대학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邊榮顯, 玄智愛



본회 林光洙회장은 “모교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끈기와 소신을 갖고 노력해달라”며 장학금을 수여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발전은 모교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장학생 본인들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

총동창회서만 324명에 장학금 9억5백여 만원 수여

2012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빌딩의 임대수입으로 장학혜택이 확대돼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르게 됐다”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빌딩 건립기금 마련에 동참해준 수많은 동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철학자 노자의 말을 인용해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된다. 10층의 탑도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서 시작하며,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말한 뒤 “모교에서 쌓는 지식과 경험들은 인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점들이 모여 서로 연결되면 큰 나무가 될 수도, 10층 탑이 될 수도 있으니 끈기와 소신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굴곡 많은 격랑의 현대사 속에서도 우리 서울대인들은 시대정신을 잃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새롭게 변화하는 모교가 국내 고등교육의 선도자로서 시대를 앞서는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데 총동창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장학생 여러분은 자신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을 확인했다”며 “모교에 입학한 이래 부모님께 또 다른 선물을 선사한 여러분은 최고의 효자이자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성과를 얻은 경험을 객관적인 교훈으로 체득했다”며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이 모교에 입학한 뒤 얻게 된 소중한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 자신의 발전은 모교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 孫一槓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洪性大특지장학금 수여



明泰鉉특지장학금 수여



朴鍾日특지장학금 수여



金東吉특지장학금 수여



卞柱仙특지장학금 수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금 수여



朴室相특지장학금 수여



金鍾祺특지장학금 수여



李亨道특지장학금 수여



朴南植특지장학금 수여

장학생을 대표해 柳보경(수의학12입)양은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모교의 모습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이룬 업적”이라며 “선배님들께서 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일구신 소중한 결실의 일부를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눠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오늘의 장학금에 담긴 뜻이 각자의 자리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세계적인 성과를 이뤄내시는 훌륭한 선배님들의 뒤를 이으라는 것이라 생각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본회 일반장학생인 鄭한결(작곡10입)군의 부친인 모교 음대 鄭台鳳(작곡72-80)교수는 “선배들의 마음으로 후배들의 학업을 돕는 오늘의 행사는 여러 가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며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동창회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하에서 明晟旻(성악07-11)·李明鉉(성악07-11)동문이 듀엣으로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槓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金貞植·尹勤煥·成百詮·金讚淑·郭永馥·卞柱仙·朴浩田·李鍾基·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趙弼濟·申明珪·金秉順이사가 참석했다.

또 모교 吳然天총장, 鄭結永학생처장, 南益鉉기획처장,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이 참석했다.

한편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보대원동창회 金旻永회장, ROTC동문회 姜實根회장, 송원기업 明泰鉉 前대표, 서원산업 朴鍾日회장, 학교법인 양지학원 金鍾祺이사장, 단일시스콤 張炳德회장, 황산서원 李興鍾원장, 서해안문화연구소 金鍾憲회장, 백립조세연구원 李秀範원장, 경인양행 金東吉회장, 삼성전기 李亨道고문, 남성정밀 朴室相회장, 운촌문화사상연구회 朴南植회장,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統雄고문, 가전길병원 朴國洋홍보실장, 신양문화재단 鄭종원 실장, 양천장학회 高文漢이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智)

2012년 1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재단법인 관악회 상임이사	배하은(국문碩)	3,500,000
		김정환(정치외교4)	3,500,000
		박윤아(법학4)	3,500,000
		정혜인(동물생명공학4)	3,500,000
		권지연(재료공학3)	3,500,000
		이성인(언어학2)	3,500,000
		전효빈(정치외교2)	3,500,000
		박민혁(인문1)	3,500,000
		승효진(화학생물공학1)	3,500,000
亞南	金柱津(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김현석(재료공학4)	1,722,500
		최중윤(서양사4)	2,681,000
李吉女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	허진우(지구환경과학4)	1,710,500
		김미리(건설환경공학1)	3,214,000
		김지인(바이오시스템1)	3,190,000
金讃淑 ·吳東英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讃淑(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나현준(치의학碩)	3,000,000
		박성환(치의학碩)	3,000,000
		이그리미(치의학碩)	3,000,000
鄭八道 ·李慈倬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이유선(치의학碩)	3,000,000
		박지윤(경영학4)	2,481,000
		장기환(기계항공공학4)	3,045,000
		노태근(경영학3)	2,481,000
		강현지(경제학2)	2,481,000
		류우열(체육교육2)	3,021,000
		정성진(원자핵공학2)	3,045,000
		최낙성(농경제사회2)	2,481,000
		강도원(인문1)	2,650,000
		구운성(화학생물공학1)	3,190,000
		권혁창(공학1)	3,214,000
		배이람(인문1)	2,650,000
		우영훈(수의학1)	3,288,000
		박정태(의학4)	2,500,000
		이세연(의학3)	2,500,000
		고태우(건축학碩)	2,500,000
		이진강(건축학碩)	2,500,000
化學科	화학과동창회	하제욱(전기컴퓨터공학碩)	2,500,000
李鍾基	李鍾基(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정준교(화학4)	3,021,000
鄭哲圭	鄭哲圭(화학공학48-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김미선(법학4)	1,000,000
		강소현(의학2)	1,000,000
金鍾祺	金鍾祺(생물교육51-55) 학교법인 양지학원 이사장	고차수(기계항공공학1)	1,000,000
		김경민(인문1)	1,000,000
		박원진(노어노문1)	1,000,000
		서형진(식물생산1)	1,000,000
		엄중한(경영학1)	1,000,000
孫致武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박 용(지구환경과학碩)	2,500,000
		김희정(지구환경과학2)	2,500,000
林光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명예회장	김드보라(산업공학4)	2,500,000
		김한술(국악4)	2,000,000
		노미혜(소비자아동학4)	2,500,000
		류수현(식물생산4)	2,500,000
		신현예(불어불문4)	2,000,000
		엄홍식(재료공학4)	2,500,000
		오희정(식품영양학4)	2,500,000
		정유진(화학4)	2,500,000
		고동주(바이오시스템3)	2,500,000
		권소영(영어교육3)	2,000,000
		김강환(서양사학3)	2,000,000
		김시현(국어국문3)	2,000,000
		신형철(재료공학3)	2,500,000
		연제현(기계항공공학3)	2,000,000
		강민선(지리교육2)	2,000,000
		김민정(윤리교육2)	2,000,000
		김서연(지구환경과학2)	2,500,000
		김영도(경영학2)	2,000,000
		김정현(철학2)	2,000,000
		박현진(재료공학2)	2,500,000
		배지현(식품영양학2)	2,500,000
		심규승(윤리교육2)	2,000,000
		엄부연(수의학2)	2,500,000
		우영호(인문2)	2,000,000
		윤혜정(경제학2)	2,000,000
		이수범(수의학2)	2,500,000
		이재륜(조경지역시스템2)	2,500,000
		최동혁(기계항공공학2)	2,500,000
吳仁錫	吳仁錫(행정58-62) 필립인베스트먼트 회장	이병찬(경제학碩)	3,325,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安聖哲 ·孫潤淑	安聖哲(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김승은(국악2)	3,976,000
鄭忠始	鄭忠始(화학공학72-76) 세진에이엠 회장	김민진(치의학碩)	1,500,000
郭永駟	郭永駟(토목공학56-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오창환(철학4)	2,481,000
		오현석(지구환경시스템4)	3,045,000
		김민선(건설환경공학3)	3,045,000
		서영현(건설환경공학3)	3,045,000
		정인균(기계항공공학3)	3,045,000
		김재현(건설환경공학2)	3,045,000
		신한결(건설환경공학2)	3,045,000
		김용휘(화학생물공학1)	3,214,000
		송운용(기계항공공학1)	3,214,000
明泰鉉	明泰鉉(기계공학46-50) 前송원기업 대표	송지현(기계항공공학4)	3,000,000
		이상민(기계항공공학4)	3,000,000
牧村 5父子	故 金道昶(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김유민(자유전공1)	3,190,000
		김인학(언론정보4)	2,481,000
		백 술(사회복지학4)	2,481,000
張學淳	張學淳(토목공학46-50) 삼양ENR 회장	이동우(사회학3)	2,481,000
李元珪 기금	李元珪(농생물학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백승원(수리과학4)	2,000,000
郭東憲	郭東憲(법학61-65) 변호사	박동열(산림과학4)	3,021,000
李相範 ·高姪錫	李相範(행정53-57) 변호사 부인 高姪錫여사	황규상(경영학2)	2,481,000
保大院	보건대학원동창회	구술기(환경보건학碩)	2,000,000
數學科	수리과학부동창회	이종경(수리과학2)	1,500,000
		조성훈(수리과학2)	1,500,000
禹仁性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박인선(의학碩)	5,384,000
陽泉	金潤澤(경대원68-70) 양천장학회 이사장	손형석(지구환경과학碩)	2,000,000
		장소영(심리학4)	1,500,000
姜信浩	姜信浩(의학46-52) 동아제약 회장	김선경(의류학3)	3,021,000
		정다운(인문2)	2,481,000
吳應鉉 ·秋景玉	故 吳應鉉(섬유공학67-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김성민(재료공학4)	3,045,000
崔喜藏	崔喜藏(섬유공학58-64) 대성사 대표		
		박주현(성악3)	3,000,000
그린	농대 그린장학회	정수정(식물생산4)	1,000,000
金炯珠	金炯珠(토목공학46-50) 삼인전취 회장	김광민(기계항공공학3)	3,045,000
		김재중(건설환경공학3)	3,045,000
金相廈	金相廈(정치45-49) 삼양사 회장	곽도영(기계항공공학2)	3,045,000
		김기범(글로벌MBA碩)	4,500,000
		나영인(철학3)	2,481,000
		임세희(산림과학3)	3,021,000
		최요섭(조선해양공학2)	3,045,000
		김태규(지역시스템4)	3,021,000
		김태우(체육교육4)	3,021,000
		박상훈(체육교육4)	3,021,000
		이규석(바이오시스템4)	3,021,000
		구자운(기계항공공학3)	3,045,000
金鍾燮	金鍾燮(사회사업66-70) 스펙코·삼익악기 회장	김경모(체육교육3)	3,021,000
		김민수(화학생물공학3)	3,045,000
		김상현(체육교육3)	3,021,000
		김웅진(정치외교3)	2,481,000
		김환훈(불어불문3)	2,481,000
		박용기(조경학3)	3,021,000
		배득욱(체육교육3)	3,021,000
		서민욱(체육교육3)	3,021,000
		신호진(체육교육3)	3,021,000
		안형진(건축학3)	3,045,000
		우평호(체육교육3)	3,021,000
		이민주(물리천문학3)	3,021,000
		장현욱(조소3)	3,710,000
		한재석(조소3)	3,710,000
		황일주(중어중문3)	2,481,000
일산회	金振儀(축산59-65) 제일실업 고문 일산회 모임	명호성(식품동물생명4)	2,000,000
朴室相	朴室相(AIC 9기) 남성정밀 회장	백지열(법학4)	2,481,000
		정의진(건설환경공학4)	3,045,000
李金器	李金器(악학55-59) 일동후디스 회장	노브리가(악학4)	3,710,000
愼昌宰	愼昌宰(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대표	전충원(의학碩)	2,500,000
		이현중(의학4)	2,500,000
		강민우(의학2)	2,500,000
		이지애(의학2)	2,500,000

장학회	설립자	수혜자	장학금
愼昌宰		김종섭(의학1)	2,500,000
		유제혁(의학1)	2,500,000
申明珪 ·朴冠鎬	故 朴冠鎬(화학교육47-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54) 관악회 이사	권용희(생물교육4)	3,021,000
		이운정(화학교육4)	3,021,000
		정광현(수학교육4)	2,489,000
		최연수(지구과학교육4)	3,021,000
		최원주(물리교육4)	3,021,000
		김셋별(간호학3)	3,021,000
		백승원(물리교육3)	3,021,000
		송승연(경제학3)	2,481,000
		신나라(지구과학교육)	3,021,000
		임현영(수학교육3)	2,489,000
		정한결(불어교육3)	2,481,000
		조종선(지구과학교육3)	3,021,000
		한수지(불어불문3)	2,481,000
		한지원(화학교육3)	3,021,000
		권윤철(역사교육2)	2,481,000
		김태균(수학교육2)	2,489,000
		양지승(생물교육2)	3,021,000
		황남희(지구과학교육2)	3,021,000
		김성수(물리학1)	3,190,000
최예진(경영학1)	2,650,000		
金斗姬	金斗姬(물리52입) 前숙명여대 교수	김광진(법학4)	2,481,000
		김승현(법학4)	2,481,000
金正澈 ·金正湜	故 金正澈(건축52-56) 前정림건축 명예회장 金正湜(건축54-58) 정림건축 회장	김환기(건축학4)	3,045,000
		전홍철(건축학4)	3,045,000
		최관석(건축학3)	3,045,000
美大	미슬대학동창회	김소아(디자인4)	2,000,000
		선보성(조소4)	2,000,000
南正鉉	南正鉉(건축57-61) 대우테크 고문	김동우(건축학博)	3,887,000
		이지형(건축학博)	4,056,000
오공 본드	金昌植(전기공학53-57) 오공 회장	변궁도(물리천문학3)	3,021,000
		이초록(물리천문학2)	3,021,000
元日	鄭啓泳(상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김주현(곤충학博)	3,861,000
		김태현(건설환경공학博)	3,887,000
		김석주(미학碩)	3,156,000
		윤영욱(조소碩)	4,758,000
		이호석(전기컴퓨터공학碩)	4,056,000
		김지현(농경제사회1)	2,780,000
金貞植	金貞植(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김기경(전기공학4)	1,573,000
		김윤수(전기공학4)	1,695,000
		문재필(전기공학4)	2,436,000
		이동영(전기공학4)	2,000,000
		이재용(전기공학4)	2,000,000
		강병욱(전기공학3)	2,436,000
		심규훈(전기공학3)	2,000,000
		양문영(전기공학3)	2,000,000
		이승재(전기공학3)	2,132,000
		주현택(전기공학3)	2,000,000
		채영호(전기공학3)	2,000,000
		최지환(전기공학3)	2,000,000
		이지한(전기공학2)	3,045,000
徐廷和	徐廷和(법학51-55) 한나리탕 상임고문	신범희(행정학碩)	3,156,000
池源哲	池源哲(축산73-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정수나(농생명공학碩)	4,000,000
趙弼濟	趙弼濟(조선항공46-50) 세양주택 회장	이인환(국어국문4)	2,481,000
		김승환(농경제사회3)	2,481,000
曹基浩 ·李英子	曹基浩(화학교육54-58) 기호물산 회장	구재윤(물리교육3)	3,100,000
		김수경(생물교육3)	3,100,000
		박삼미(화학교육3)	3,100,000
柳重熙	柳重熙(기계공학53-57) 남성산업 회장	백 설(화학교육2)	3,100,000
		이원준(기계항공공학4)	3,045,000
具平會	具平會(정치47-51) E1 명예회장	석지원(환경보건碩)	3,861,000
李禎相	李禎相(상학59-65) 보생 대표	김지현(디자인3)	3,710,000
李禮植	李禮植(약학46-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정유진(약학2)	4,551,000
李竣鎬	李竣鎬(경제56-60) 대림산업 명예회장	조연영(보건학博)	3,861,000
		조철희(기계항공공학碩)	3,045,000
		이건희(전기공학4)	3,045,000
		전영삼(건설환경공학4)	3,045,000
		장민선(정치외교3)	2,481,000
		곽남륜(식품영양학2)	3,021,000
		김혜윤(건설환경공학2)	3,045,000
		김화형(식품생산2)	3,021,000
		박미소(바이오시스템2)	3,021,000
		손서연(응용생물화학2)	3,021,000
오동일(조선해양공학2)	3,045,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李亨道	李亨道(화학공학61-67) 삼성전기 고문	이승현(화학생물공학3)	3,045,000
金文鉉	金文鉉(상학58-64) 대일씨앤아이 회장	금다정(간호학2)	2,000,000
朴南植	朴南植(SGS 2기) 운촌문화사상연구회 회장	윤재윤(농경제사회2)	2,481,000
成百詮	成百詮(토목공학52-56) 한국해외기술공사 대표	곽장욱(지구환경시스템4)	3,000,000
張重桓	張重桓(의학69-76) 장종환산부인과의원 원장	조두연(법학4)	2,481,000
安 勳	安 勳(수의학53-57) 양계장 경영	송원문(농생명공학1)	3,190,000
朴浩田 ·金英姬	朴浩田(경영62-66) 삼덕 회장 부인 金英姬(작곡62-66)여사	김영혁(바이오시스템4)	3,021,000
		김찬희(체육교육4)	2,662,000
		김희원(전기공학4)	508,000
		박수은(체육교육4)	2,340,000
		박영준(건축학4)	3,045,000
		박영태(기약4)	3,976,000
		윤태림(국악4)	3,976,000
		임문형(작곡4)	3,976,000
		임형준(경영학4)	2,481,000
		권현수(간호학3)	3,021,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朴浩田 ·金英姬		박윤선(농경제사회3)	2,481,000
		최주연(독어교육3)	2,130,000
趙慶一	趙慶一(약학64-68) 하나제약 대표	허필중(경영학4)	2,481,000
卞柱仙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김효원(영어교육2)	2,481,000
張炳德	張炳德(화학교육53-57) 단일시스템 회장	나유진(화학교육3)	3,021,000
		이지운(화학교육2)	3,021,000
金炳贊	金炳贊(의학53-60)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강진혁(경제학2)	2,481,000
金東吉	金東吉(화학교육57-61) 경인양행 회장	서민석(화학교육2)	3,021,000
李昌遠	李昌遠(법학55-60) 한국단자공업 사장	이윤형(자유전공2)	3,021,000
金鍾憲	金鍾憲(경제55-59) 서해인문화연구소 회장	김대환(경제학4)	2,500,000
斗山	朴容晟(경제59-65) 대한체육회 회장 朴容炫(의학62-68) 두산그룹 회장 朴容晩(경영73-78) (주)두산 회장	김경철(의학碩)	5,000,000
		김재식(의학碩)	5,000,000
		최재영(의류학4)	2,000,000
		이정훈(경영학3)	2,000,000
		장현용(경영학2)	2,000,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金落榮	金日煥(천문기상학64-72) 대화 대표	김아람(간호학4)	3,021,000
嚴秉潤	嚴秉潤(외교60-64) 유리R&D 회장	이기훈(정치학4)	2,481,000
		박윤주(외교학3)	2,481,000
藥大	약대동창회	이승은(약학4)	1,000,000
		강소은(약학2)	1,000,000
		김주연(약학2)	1,000,000
		김지은(약학2)	1,000,000
		최아희(약학2)	1,000,000
朴鍾日	朴鍾日(조선항공공학47-51) 서원산업 회장	김여경(기약2)	3,976,000
李鍾大	李鍾大(천문기상69졸) 대룡ENC 대표	오지선(의학2)	5,115,000
李興鍾	李興鍾(역사교육54-58) 황산서원 원장	김은하(역사교육2)	500,000
		정예지(역사교육2)	500,000

※ 2012년 2월말 현재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총 1백25개이며, 이번 학기에는 77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함.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광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안세진(종교학 석사과정)·홍성은(철학3) ▲사회대 이진호(경제학 박사과정)·張晉旭(경제학 석사과정)·곽미성(정치학4)·김현성(심리학4)·장남진(언론정보학4)·정구승(사회학4)·정진원(심리학4)·이창민(지리학3) ▲자연대 변상문(화학 석사과정)·황영종(지구환경과학 석사과정)·김정음(통계학4)·정지호(화학4)·김원지(생명과학3)·서민경(생명과학3) ▲간호대 유하영(간호학4)·강민서(간호학3)·최유리(간호학2) ▲경영대 김선아(경영학4)·이인혜(경영학4)·최성만(경영학3)·남석현(경영학2) ▲공대 이기수(기계항공공학4)·金潤載(기계항공공학3)·김태우(기계항공공학3)·조재훈(에너지자원공학3)·정진서(원자핵공학2)·최영훈(전기공학2)·황철호(기계항공공학2)·崔俊錫(재료공학2)·임희창(컴퓨터공학2) ▲농생대 孫圭식(식물생산과학4)·조은애(농경제사회학4)·陳省實(농경제사회학4)·박용건(농경제사회학3)·권승우(응용생물화학2)·유호찬(산림과학2)·陳한샘(농경제사회학2)·홍유선(바이오시스템2) ▲미대 柳熙苑(조소4)·문혜진(디자인3) ▲법대 박시훈(법학 박사과정)·오정민(법대원2)·김소담(법학4)·육은석(법학4) ▲사대 李賢娥(사회교육

석사과정)·徐承壹(독어교육4)·洪藝利(체육교육4)·서완택(체육교육3)·이서영(지리교육3) ▲생활대 金 은(식품영양학4)·강보람(소비자아동학3)·장애림(의류학3) ▲수의대 楊知永(수의학4)·유보경(수의학1) ▲약대 서보경(약학2) ▲음대 이진현(기약4)·김성신(작곡3)·鄭한결(작곡3) ▲의대 李東昱(의학4)·박희문(의학3)·김신후(의학2) ▲자유전공 공지원(자유전공2)·문승용(자유전공2) ▲행정대학원 裴고운(정책학 박사과정)

각 단과대동창회 장학금 129명에 3억2천9백80만9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洪京子)= 14명 : 1천20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鄭潤煥)= 19명 : 4천2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金慶漢)= 22명 : 8천79만9천원 ▲사대동창회(회장 卞柱仙)= 15명 : 3천8백66만2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成耆鶴)= 39명 : 9천7백14만8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角模)= 2명 : 1천만원 ▲의대동창회(회장 朴容炫)= 4명 : 2천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金秉燦)= 4명 : 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李文漢)= 2명 : 8백만원 ▲현대원동창회(회장 李萬儀)= 5명 : 5백만원 ▲SGS동창회(회장 曁白一)= 3명 : 6백만원

의대동창회

해외연수 지원금·장학금 전달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炫)는 지난 2월 10일 모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에서 2012년 상반기 해외연수 지원금 전달식 및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중앙대병원 신경과 朴光烈

朴道中(의학92-98)교수, 삼성서울병원 嚴祥源(의학92-98)교수에게 3천달러씩 총 1만2천달러를 전달했다. 또 김동건(의대1년), 박서영(의대1년), 김정욱(의대2년), 윤동환(의대2년)학생에게

각 5백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2월 12일 합춘회관에서 朴容炫회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바둑대회를 열고 친목을 다졌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陳泰薰(의학84졸) 동문, 준우승 金炳晔(의학50-56)동문, 3위 金潞經(의학58-64)동문, 행운상 朴商弘(의학64-70)동문 ▲B조 : 우승 魏在勳(의학52-58)동문, 준우승 黃義基(의학77-83)동문, 3위 李裁興(의학57-61)동문, 행운상 朴熙伯(의학51-57)동문 ▲C조 : 우승 李枝馥(의학52-58)동문, 준우승 李甲淳(의학55-61)동문, 3위 李峻漢(의학52-58)동문

사대동창회

청관·범은·천재교육 장학금 지급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2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1학

천4백2만5천원, (이사장 張忠植)에서 박은지(교육학3년)양 등 10명에게 2천4백

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관 장학회에서 최현아(불어교육3년)양 등 5명에게 1

63만7천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1년 2월 천재교육 崔容準(수학교육61-65)회장이 모교 학술장학기금으로 쾌척한 20억원으로 지급하는 천재교육장학금은 박상연(영어교육4년)군 등 20명의 학생이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卞柱仙회장, 金昌皙상임부회장, 성동고 金英吉(교육학62-66)前교장, 한국방송기자클럽 柳子孝(불어교육68-75)前회장, 서울국제고 李柄好(영어교육70-74)교장, 모교 사대 金鍾旭(지리교육71-75)학장, 천재교육 吳炳木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경제학부 이병찬·최영훈 군과 경영학과 김명규·하원석 군에게 최우수 졸업상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成耆鶴회장, 한국물류협회 安台鎬(경제45-53) 명예회장, 오라관광 金正銀(경제52-56)前대표, 삼성KPMG 姜成遠(상학66-70)부회장, 동반성장위원회 鄭雲燦(경제66-70)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智)

3·4월 행사 캘린더

3월 20일(화) 오후 6시

·의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롯데호텔 2층

〈문의 : 02-740-8183〉

3월 21일(수) 오후 4시

·간호대동창회 정기총회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문의 : 02-740-8843〉

4월 14일(토) 오전 11시

·생활대동창회 정기총회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간사 010-9156-3757〉

공대동창회

최우수 졸업자 30명 격려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2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최우수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尹友錫회장, 신우인터내셔널 崔翔五(금속공학63-67)사장, 모교 공대 李愚日(기계공학72-76)학장·朴鍾來(섬유공학81졸)교무부학장·尹齊鏞(공업화학80-84)학생부학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각 학부별 최우수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건설환경공학부 이영빈·박지훈 ▲기계항공공학부 김규원·노민균·장정재·정연범·조용래 ▲재료공학부 구병진·김지연·박지민·이승용 ▲전기공학부 강혁중·고희석·김준오·박영우·박현수·서주현 ▲컴퓨터공학부 고우중·박상일 ▲화학생물공학부 고종국·김재정·예상현·이성원 ▲건축학부 김에라·이보경 ▲산업공학과 장우석 ▲에너지자원공학과 송지현 ▲원자핵공학과 최태섭 ▲조선해양공학과 김현진·박중용



총동창회장상 수상자와 林光洙회장(中)

약대동창회

새 회장에 千文字동문 선출

약학대학동창회(회장 鄭之碩)는 지난 2월 24일 서울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동국대 약대 千文字(약학61-65)학장을 선출했다. 신임 千회장은 모교 약학대학장·약학연구소장,

대한약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후배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동창회는 장학발당을 건립했다”며 “앞으로 모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모교가 세계 초일류 명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로패 수여식에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미상사 尹煥玉(약학50-54)회장, 모교 약대 李殷芳(약학55-59) 명예교수, 한국웨일즈제약 徐浚錫(약학57-61)대표, 마성상사 金閔鍾(약학64-71)대표, 약대동창회 여동문회 李惠聖(약학69-73)부회장에게 총동창회장상을 전달했으며, 합신공사 鄭仁祚(약학51-55)사장, 약대동창회 여동문회 金玉蘭(약학55-59)·鄭求敬(약학55-59)·洪玉善(약학55-59)이사, 향도약국 徐舜喆(약학60-64)대표, 백조약국 崔正燮(약학65-69)대표, 대웅제약 李鍾郁(약학67-71)대표, 원곡우리들약국 安秉玉(제약68-76)대표, 아이큐어 崔永權(제약80-84)대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金國鉉(제약83-87)대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손지연(제약89-94)부장에게 약대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이어 올해 우수 졸업생인 김준현·연희라 동문에게 축하선물을, 종로구약사회 鄭寧基(약학79-83)회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지금도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활발히 움직이는 게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

기회가 되면 특강도 나간다. 현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서예최고위



趙守鎬

도 꾸준히 하는 편이다. 걷는 것을 좋아해 1주일에 3~4일 정도 2km씩 걷는다. 식사 때도 비교적 기름기 많은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하며, 아침에는 항상 죽을 먹으며 위장을 가볍게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각자의 건강법이 있겠지만 나이가

● 예술활동 ... 건강에 도움

과정에서 1학기에 2번씩 강의를 하고 있다. 수강생의 연령대가 30~60대로 다양한데 열심히 청강하는 모습에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운동

들수록 예술적인 활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머리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삶에도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회화47-51)한국국제서법연맹 총재



학술원에서 80세가 넘는 나이에든 젊은 에너지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간혹 건강 비결을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등산’을 추천한다.

2008년부터 공학계 최초로 학술원 회장을 맡아 각종 회의와 세미나를 주최하고 학술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金商周

토요일은 꾸준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교수 산악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 10여 명의 교수들과 매주 전국의 유명한 산을 찾아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경치도 보고 대화도 나누며 그간 쌓인 피로도 풀 수 있다. 또한 등산은 맑은 공기로 심신

● 매주 토요일 名山 찾아

것은 25년동안 꾸준히 등산을 해서 건강하기 때문이다.

모교 교수 시절부터 매주

을 달래고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지혜와 지구력도 길러준다. (금속공학49-56)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黃暎愛 作

〈작가약력〉

- ▲1967~1971 모교 조소과 졸업
- ▲확장된 공간전 (KEPCO PLAZA)
- ▲빌리다르와 예술가들 (서울조각회)
-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
- ▲서울미술대전-한국현대조각2010 (서울시립미술관)
- ▲초대전 및 단체전 다수 참가
- ▲훈민회 회원·조각가

幻·他·知·我 (6), 40×6×45cm, Painted Steel, 2006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모교 신입생에 장학금 전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2월 27일 대전시내 한정식당 만두레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동창회 임원, 출신학교장, 담임교수,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2년 모교에 입학한 대전·충남 출신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吳應準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교 재학생인 이선주(노어노문학11입)양, 이정준(보문고)군, 신준호(대전고)양, 정수진(호수둔여고)양, 황지상(충남고)군, 이의석(송전고)군, 안세준(대전과학고) 등 9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약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치대·치대원동창회

자랑스런 동문 시상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2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金秉燦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모교 치과대학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발전했다”며 “을 봄에 개최되는 모교 관악캠퍼스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 신축 기공식을 필두로 연내 많은 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JIBS 申榮均(치의학48-55)명예회장, 모교 치의학과 金明國(치의학54-58)명예교수, 安相奎(치의학59-66)前안상규치과원장이 수상했으며, 洪禮杓(치의학65-71)前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단이 공로패를 받았다. (智)



李炫九·李重根·金光石·朴世煥·崔 懋동문

AMP동창회

11회 AMP대상 3명에 수여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2월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1회 AMP대상 시상식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光石회장을 비롯해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朴永寬(의학58-64·29기)이사장, SK텔레콤 趙政男(화학공학61-67·45기)前고문, 모교 경영대 崔 懋(경영75-79)학장 등 2백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



AMPFRI동창회

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 열어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宋明儀)는 지난 2월 7일 서울 청담동 프티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崔仁植·張玄星·蘇宰範·韓基永·朴秉南·尹煥植·申一汕·文允奉 前회장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교 보건대학원 白道明원장의 축사에 이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이 “평소 열의가 가득 차고 훈훈한 기운이 도는 AMPFRI동창회를 총동창회에서는 모범적인 동창회로 생각하고 롤 모델로 삼고 있다”며 “오늘 역대 회장들

항을 이뤘다. 金光石회장은 인사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이 높아지는 AMP대상은 4천6백여 동문들을 대표하는 상”이라며 “수상자 여러분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모교 경영대 崔 懋학장은 축사에서 “동문들이 합심해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대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AMP대상 수상자로 부영그룹 李重根(5기)회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朴世煥(39기)회장, 카사미아 李炫九(52기)대표가 선정돼 상패와 꽃다발을 받았다.

이 모두 함께 하는 이런 이·취임식은 꼭 필요한 절차이고 보기 좋다”고 말했다. 초대 崔仁植회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탤런트 박영규 씨가 프랭크 시나트라 의 ‘마이 웨이’를 축하로 선사했다. 이어 이임하는 文允奉 前회장과 최인호 사무총장에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여했으며, 文 前회장이 신임 宋明儀회장에게 동창회기와 추대패를 전달했다. 宋회장은 취임사에서 “소통, 변화, 발전의 세 가지 목표로 동문과 늘 함께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동문 백서를 제작해 상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만찬 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양반택 權 純(4기)대표가 황금찬 시인의 ‘나의 소망’을 낭송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FP동창회 崔同珠회장
(현대산업개발 고문)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동창회는 지난 2011년 12월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현대산업개발 崔同珠(4기)고문을 선출했다. AFP는 인문대에서 2007년 개설한 과정으로 창조정신과 윤리정신, 글로벌 마인드 등을 배우며 인문학적 교양을 기르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회원간 친목과 우의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AFP동창회는 현재 9기까지 3백50여 명의 회원이 배출됐다. 신임 崔회장에게 소감 및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돼 감사드리며, 모교와 총동창회의 뜻을 존중해 함께 더 큰 하나됨

는데 경영철학이 있다면. “정직성은 정도의 삶을 사는 지표이며 제가 추구하는 경영철학입니다. 현대아이파크몰과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지내면서 인문학적 발상을 통해 시장의 물을 변화시키고자 했죠. 경영 일선의 경험으로 볼 때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사고의 함양입니다. 인문학은 사회의 중요한 요구에 긍정적 대안과 해답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인문학적 상상력과 혁신을 통한 발상의 대전환은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키죠. 기업환경의 불확

“심화학습강좌 등 개설 예정”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동창회 운영 계획은. “과정 수료 후에도 계속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창회,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동문들이 과정 수료 후에도 인문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규강좌가 아닌 추가 심화학습강좌 등을 상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인문대 邊昌九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참여한 간사단 회의에서 의견을 소통하는 등 자연스럽게 모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AFP동창회가 모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리라 봅니다.” - 기업체 대표시절에 혁신적 창의경영을 주도하신 것으로 아

실성이 커지고 비즈니스 환경이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경영의 융합은 중요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형 인재보다는 개성, 창의력, 스피드로 무장한 인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모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세계 명문대의 비전과 사명을 보더라도 대학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연구중심, 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일시적 사회의 트렌드가 아닌 모든 학문적 기초가 되도록 인문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1952년 전남 해남 출생인 崔회장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현대백화점 상무, 풀무원 부사장, 올가홀푸드 대표, 제너시스 사장, 현대아이파크몰 대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역임했다. <智>

전북지부동창회

전주서 신입생 환영회 가져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2월 20일 전주 시내 증식당 백리향에서 모교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본회 洪性大(수학57-63)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신입생 배지와 기념품을 증정하며 신입회원들을 격려했다.



건축학과동창회

李圭載회장 선임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朴英健)는 지난 2월 6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朴英健회장을 비롯해 2백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삼성물산 李圭載(건축67-71)부사장을 선출했으며, 종합건축사무소 진원 金永雄(건축70-74)대표를 감사로 선임했다. SPARC동창회 鄭淳伯회장 취임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河相哲)는 지난 2월 29일 모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목련실에서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제6대 회장에 위너콤 鄭淳伯(17기)대표를 선출했다. 한편 모교 자연대 金明煥학장이 그동안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河相哲(15기)회장, 李秀元(15기)사무총장, 金光洙(14기)기획국장, 房龍洙(16기)사업국장, 朴辰鎬(자연과학95-03·16기)재무국장, 金志炫(13기)홍보국장, 李美淑(18기)여성국장 등 7명의 전임 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SPARC동창회

鄭淳伯회장 취임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제6대 회장에 위너콤 鄭淳伯(17기)대표를 선출했다. 한편 모교 자연대 金明煥학장이 그동안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河相哲(15기)회장, 李秀元(15기)사무총장, 金光洙(14기)기획국장, 房龍洙(16기)사업국장, 朴辰鎬(자연과학95-03·16기)재무국장, 金志炫(13기)홍보국장, 李美淑(18기)여성국장 등 7명의 전임 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

새 회장단 출범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李圭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任晟準(외교67-71)석좌교수(사진)를 선출했다. 또 수석부회장에 모교 張寅性(외교77-81)교수, 감사에 경희대 金玟甸(외교84-88)교수·유웨이중앙교육 柳樂山(정치84-88)대표, 총무에 법무법인 청목 鄭官



珠(외교82-89)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신임 任晟準회장은 1974년 외무고등고시 합격 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주이집트대사관 대사,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智>

바른 세상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바른의 법률서비스가
바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New Leader

법무법인 바른
www.barunlaw.com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대치동 945-27)
대표전화 : 02)3476-5599 대표팩스 : 02)3476-5995



孫一根·金仁圭·裴仁俊·金亨珉·林光洙·朴明珍·安秉勳·李炯均·文昌克동문

관악언론인회 제10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 언론인 대상’에 SBS 金亨珉논설위원

관악언론인회(회장 裴仁俊)는 지난 2월 29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정기총회 및 제9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安秉勳·李炯均 명예회장, 裴仁俊회장,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劉鐘海·尹勤煥·孔大植·辛鉉雄·金鍾燮부회장, 본보 徐玉植·鄭世溶·李東植·金亨珉·金鎮國·崔英勳·吳在錫·李先敏·蔡耕玉 논설위원, 모교 朴明珍부총장·姜浚鎬기획2부처장 등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SBS 朴憲慶(의류94-99)이나 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裴仁俊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관악언론인회는 여러 언론사 동문간 소통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여러 차례 단합과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며 “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는 네트워크를 정리한 여기자회 수첩을 펴냈으며, 전체 모임도 활발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 법인화와 동창회관인 장학빌딩의 완공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응원을 해왔다”며 “올해도 모교와 동창회가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데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이 애정과 호응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이 나라 언론 구성원 가운데 우리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책무를 놓고 지혜와 고민을 나누면서 끈끈한 우의를 더 깊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요지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SBS 金亨珉논설위원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시청자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랍직한 사회여론 형성에 기여했고, 관훈클럽 총무와 동창회보 논설위원,



裴仁俊회장(右)이 金亨珉동문에게 상패 수여

관악언론인회 간사장을 맡아 선배 동문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창립총회를 개최한 관악언론인회가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인의 책임과 위상을 지키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모임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축사 요지 참조>

모교 朴明珍부총장은 축사에서 모교 법인화와 관련해 “여러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법인 등록을 끝내고 지금은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백 개의 규정과 수십 개의 학칙을 일일이 바꾸는 과정이라 법인화 준비과정만큼이나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얹혀있지만 동문들의 기대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모교와 언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는데 모교 본부와 언론정보학과가 힘을 합쳐 모교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여기 계신 언론인 동문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9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SBS 金亨珉(외교76-80) 논설위원이 수상했으며 상패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金亨珉동문은 SBS에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의 이슈와 국가적 어젠다 등

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토론해 바람직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제55대 관훈클럽 총무를 지내며 언론계 선후

배간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언론계 발전에도 이바지했으며 본보 논설위원, 관악언론인회 간사장을 맡아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도 적극 참여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기자협회 李炯均교문은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사회적 공헌 외에도 모교, 총동창회, 관악언론인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대상 후보로 여러 동문들이 추천됐지만 모교와 총동창회, 관악언론인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 등을 포함해 심사한 끝에 金亨珉동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金亨珉동문은 수상소감에서 “2월 29일인 오늘은 4년마다 받는 보너스 같은 날”이라며 “보너스로 받은 시간 가운데 황금시간대를 여러분과 같이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상소감 요지 참조>

文昌克명예회장의 건배제의에 이어 가수 유 열 씨가 金亨珉동문의 수상을 축하하며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열창했으며,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남성중창단이 ‘Stein Song’, ‘강 건너 봄이 오듯’, ‘Nessun Dorma’, ‘Nella Fantasia’, ‘Oh, Happy day’ 등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세트와 장학빌딩 준공 기념 필함을 받았다. <췌>

본회 林光洙회장 축사 <요지>

지난 2003년 당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국가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 공헌하겠다는 뜻을 안고 관악언론인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현재라는 장을 통해 과거를 穿鑿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때 역사는 발전할 것입니다.

1895년 조국 근대화의 꿈을 안고 시작된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국립대학법인 출범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는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모교 발전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간의 개교원년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아 이러한 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역사기념관의 필요성을 실감했고, 모교의 요청도 있어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연구결과에 따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모교가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裴仁俊회장 인사말 <요지>

지난해 관악언론인회는 여러 언론사 동문 회원간 소통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여러 차례 단합과 대화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적극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해는 모교 법인화의 기초를 세운 해이고, 동창회 장학빌딩을 완공 개관한 해입니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리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응원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모교와 동창회가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데 우리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이 애정과 호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하나 다사다난하지만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고, 북한은 金正日 사후 첫 해입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도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 언론 구성원 가운데 우리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언론의 책무를 놓고 지혜와 고민을 나누면서 끈끈한 우의를 더 깊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金亨珉동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이 年富力強한 동문 언론인들에게 격려와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金亨珉동문 수상 소감 <요지>

2월 29일, 바로 오늘 주어진 24시간을 기분 좋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4년만의 보너스라는 말입니다. 보너스로 받은 시간 가운데 황금시간대를 여러분과 같이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不離不棄’라는 한자 성어이고, 하나는 ‘Never Give Up’이라는 영어표현입니다.

‘不離不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헤어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고, ‘Never Give Up’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ezio)는 “상을 받는 것은 시간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계속 쓰고자 하는 욕망을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의 얘기지만 시청자를 위해 방송하는 제 얘기로 바뀌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먼저 수상하신 선배님들의 훌륭함에 비추어 본인은 참 못 미친다, 이 훌륭한 상이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상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당당히 받겠습니다. 오늘 이 상과 함께 르 클레지오가 얘기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좀더 성숙한, 좀더 언론인다운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받은 그 시간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길을, 언론인의 길을 뚝뚝뚝 가겠습니다.

(주)영원무역
www.youngone.com

YOUNGONE

세계 속에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 속에 세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전문 기업-영원무역

세계 5개국의 생산기지과 14개국의 해외사무소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엘살바도르 등 5개국의 생산기지과 미국, 이태리, 스위스, 중국 등 14개국의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 세계에 연 4억불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생산기지]

세계 최초의 무봉제 생산기술 개발

세계가 인정한 무봉제 생산기술인 CWS (Construction Without Sewing)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여 기술 중심의 첨단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CWS 테크놀로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세계이웃 나눔경영

월드비전과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3세계 빈곤국가, 오지의 어려운 이웃과 북한어린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나눔경영을 실천합니다.



[3세계 빈곤국가 지원]

화제의 동문

우덕문화원 李信子원장

지난해 12월 8일 대한민국예술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부회장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덕문화원 원장과 갤러리 우덕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李信子(응용미술50-55)동문이다.

李동문은 우리나라 공예예술의 역사이자 현존하는 최고참 작가로 덕성여대 예술대 교수로 재직 당시 섬유예술을 대학 교육과정에 보급시킨 미술계의 선구자로도 유명하다. 모교 미대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며 동창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 李동문은 “예술원 회원으로만 있던 시절과 달리 부회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을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1997년 李동문이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을 당시만 해도 예술원에는 여성회원이 많지 않았다. 그 이후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다양해지고 권위가 신장되면서 예술원도 여성회원이 늘어났지만 현재 회장단 출범 전까지는 여성이 회장단이 되는 것은 금기시 돼 있었다.

“그동안 예술원이 조금은 경직돼 있었죠. 金正鉉(불문51-56)회장님이 임기동



오하려 감사합니다.”

李동문은 우덕문화원 갤러리에서 다양한 미술작가들의 발품을 모토로 연 17회 이상, 15년 째 전시를 개최해 오고 있다. 다채로운 기획능력과 후학양성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나라 미술의 반세기를 점령한 李동문은 ‘철의 여인’으로 통한다.

기획능력 겸비한 ‘철의 여인’

李동문은 예술원뿐만 아니라 미대에서도 첫 여성 동창회장으로 다양한 동문교류전과 행사로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힘썼다. 남편(故 張雲祥 회



김경중법률사무소 金敬鍾변호사

그중 회화는 10호의 소품부터 5백호가 넘는 대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야외 조각품은 높이 10미터에 육박하는 것도 있다. 각 작품에는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 작품에 담긴 의미 등을 세심하게 적어 놓았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법원을 딱딱하고 오기 싫은 곳이 아니라 화해와 휴식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요. 이 지역이 도시 외곽이라 주민들도 그렇고, 법원 직원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법원 간부들과 의논을 거듭한 끝에 청사 이전과 함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해 미술관 같은 법원, 공원 같은 법원을 만들어 보자고 결정했죠.”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 지역 주민과 법원 직원은 물론 작품을 설치한 작가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파리8대학 주임교수를 역임했던 작가 아스드루발 콜메나르즈는 “자신의 작품을 설치한 것 중 가장 좋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맘

대한민국예술원 최초 여성 부회장 우리나라 섬유예술계의 최고참 작가

안 함께 꾸려갈 러닝메이트로 저를 지목했을 때도 여성부회장을 지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서 주변 사람들 모두 놀랐죠.”

중국 예술원과 교류전 추진

예술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필요했던 시기에 섬유예술작가·명예교수·갤러리 대표로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두루두루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李동문이 부회장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

“지난번엔 일본과 교류전을 했는데 제 임기동안은 중국 예술원과 교류전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술 시장 규모도 크고 상당히 매력 있는 작가들이 많아서 서로 의미 있는 작업이 이뤄질 거 같습니다.”

덕성여대 교수로 32년 동안 후학양성과 작품활동에 힘쓰던 당시를 “술 톰 없었다”고 말한 李동문. 정년퇴임 후에도 미술계 현업에서 한국야구르트(대표 梁基洛)의 사회공헌 문화사업인 우덕문화원 원장을 맡아 갤러리의 전시·기획 등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퇴임 후면 다들 쉬면서 작품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죠. 힘들 때도 있는데 갤러리 대표를 맡아 전시를 개최한 신진 작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미술계와 후배들 발전을 위해 좋은 전시를 기획할 수 있어

화46-51)과의 인연을 묻자 李동문은 팔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과 포부를 밝혔던 모습과 달리 수줍게 1950년대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교 응용미술과에 지원을 해서 어렵게 합격을 했죠.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6·25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임시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선배인 남편을 만났어요.”

1982년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어렵게 1남3녀를 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李동문은 쉽지 않았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李동문은 미술계의 저변 확대와 작품활동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일정은 많지만 작업실이 집에 있어서 밤을 지새워서라도 한 실 한 실 엮으며 작품을 탄생시키곤 해요. 우리 동문들도 각자 분야의 뉴크리에이터(New Creator)로 끈질기게 노력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李원장은 1974년 홍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덕성여대 예술대 초대 학장, 한국디자인협회 이사장, 한국섬유미술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1년 국전이 폐지되는 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을 출품했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문교부 포상, 국민훈장,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 미술인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榮)

법원장 시절 미술관 같은 법원 만들어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 1백여 점 전시

로 놀러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2월 8일, 金敬鍾동문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한 얼굴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설치된 미술품을 직접 보여주며 시종일관 열심히 설명했다. 작가의 약력부터 작품의 의도까지 너무도 상세한 설명에 흡사 미술관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전문가가 아니면서 어찌 이리도 잘 아는지 물으니 그가 웃으며 답했다.

작가 직접 만나 작품 섭외

“청사 이전 1년 전부터 작가들을 직접 만나 섭외하고 설득했어요. 예산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작품이 들어갈 공간을 보여주며 작가 한 명 한 명과 만나 교류했어요. 그 덕분에 그들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이렇게 그의 노력과 함께 청사에 설치된 미술작품은 무려 1백여 점. 한·독미술가협회 閔福鎮부회장, 서울시립미술관 柳熙永(회화58-62)관장, 문화공간모약재 柳休熙대표 등 국내뿐만 아니라 나옴미 군지(Naomi Gunji 동양화86-91), 아스드루발 콜메나르즈(Asdrubal Colmenarez)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까지 포함됐다.

껏 놀러오게 하고 싶었다”는 그의 바람이 일정부분 이뤄진 셈이다.

‘마니프’ 조직위원장 맡기도

이때 알게 된 인연으로 그는 지난 2011년 10월 개최된 미술전시 MANIF(서울국제아트페어)의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문가가 아닌 탓에 실무적인 것보다는 외부 인사들을 영접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지만 그에게는 좋은 추억이 됐다.

“처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작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알게 됐고, 그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들을 접하며 미술에 대한 소양을 조금 넓혔을 뿐이죠.”

지난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내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金동문은 은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했다. ‘갑’의 위치에서 ‘을’로 바뀐 것도 변화라면 변화지만 앞으로는 좀더 여유롭게 인생을 돌아보며 살고싶다 얘기하며 밝게 웃었다.

“모교 재학시절 잦은 데모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대학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맘껏 시험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좀더 가져볼까 합니다.” (智)

행복한 광주를 위한 SNS 시민커뮤니티

Social Network Community

SNS서포터즈 모집

2.20(월)~3.30(금)

SNS서포터즈 활동

- [나눔] 시정소식과 유용한 생활정보 나눔
- [제안] 생활 불편사항 제보, 아이디어 제안
- [전파] 재난·사고·위기정보 신속하게 전파
- [공유] 광주의 매력을 담은 시민콘텐츠 공유
- [기부] 이웃을 위한 봉사와 소중한 재능 기부

twitter



SNS서포터즈 혜택

- 서포터즈활동 자원봉사 시간 인정
- 광주시 행사 서포터즈 우선 초청
- 시민콘텐츠 제작 원고료 지원
- 뉴미디어 매체 및 IT기기 활용 교육
- 연말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SNS서포터즈 모집개요

지원자격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사용하는 국민 누구나
 모집기간 - 2012. 2. 20(월)~ 3. 30(금) 18:00
 모집인원 - 500명 (1년간 활동)
 지원방법 - 온라인접수 <http://sns.gwangju.go.kr>
 문 의 -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T.062-613-2164
 ※ SNS서포터즈 네이밍(명칭) 공모도 참여하세요!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HOW TO LIVE
SMART

당신의 말을 이해하다

David Copperfield
삼성전자 스마트TV모델
데이비드 카퍼필드

당신의 손짓에 반응하다

누군가에겐 충격적인 당신에겐 현실적인
TV의 기적이 시작된다

55형 ES8000

The Future of Smart TV, Now
Samsung **SMART** TV 삼성스마트TV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보다 더 마술같은 TV의 기적

스마트 인터랙션
당신의 음성, 행동, 얼굴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기적

스마트 콘텐츠
가족과 함께 클라우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

스마트 에볼루션 (2013년부터 판매예정)
에볼루션 키트만 꽂으면
새로운 TV가 되는 기적

삼성전자

SAMSUNG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 추진”

동문을 찾아서

모교 任廷基 연구부총장

지난해 12월 당시 모교 의대 학장이었던 任廷基(의학68-75) 동문은 학장 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모교 연구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모교는 법인화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이사장 시절 의대 학제 선택 자율권을 교육과 학기기술부로부터 얻어낸 실력과 보직자인 任동문을 단숨에 알아봤다. 2월 28일 입학과 졸업시즌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任동문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답 : 許英燮(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논설위원

— 모교 연구부총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총장실 전망이 참 좋네요. 연건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옮기시면서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관악캠퍼스는 산이 있어서 그런지 전망도 좋고, 나무도 많고 트임이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학장시절부터 40년 이상을 해화동 대학로 언저리로 등·하교하고, 출·퇴근하다가 관악캠퍼스로 출근을 하니 처음에는 언뜻 방향이 맞나하는 착각이 들기도 했죠. (웃음)”

— 방학 중에도 계속 학내 행사와 법인화 관련 모임 등 일정이 많으신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회나, 재정경제위원회, 예전으로 말하면 학장회의와 같은 학사위원회, 간부들 회의가 계속되요. 그런 회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니 바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입학과 졸업 시즌이라 각 단과대 고위과정 행사에서 축하하는 일이 많아요. 하루는 길고 일주일은 짧게 느껴집니다.”

— 본부 보직 맡으신 것을 실감하셨겠네요. 부총장이라는 자리가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와 직접 맡으시고 활동하셨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요.

“보직이란 점에서는 학장 자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직이란 행정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학자로서는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학자로서 ‘가슴 시린’ 부분이 있죠.

연구부총장 역할은 연구처 및 산학협력단, 기획처,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 관련 업무와 행정, 재정에 관한 업무의 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총장이 법인화 이후 이사회 당연직이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연구부총장은 이사회 일원이면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습니다. 2개월동안 느낀 점은 구성원들 모두가 전문성이 뛰어나고 모교에 대한 헌신과 애정이 매우 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동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글로벌 중심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생들과 직

• 任부총장은

1950년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모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모교 대학원에서 방사선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모교에 부임 후 홍부방사선연구회장, 모교 병원 진료부원장, 한국의학학술지 편집인협회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2

월 16일 모교 연구부총장에 임명됐다.

任부총장은 의학자로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모교 병원과 의과대학 내에서 주요 보직을 통해 행정업무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교 스키부 초창기 멤버로 지금까지 겨울철 매주 토요일에는 스키를 즐겨한다. 부인과 사이에 의사인 아들 둘을 두었다.



바탕으로 그동안 규제가 많아서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전전략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보면 되죠.”

— 가장 큰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율성과 책임이지만 또 다른 목표는 세계 속의 서울대, 즉 세계화 아니겠습니까. 법인화 이후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뚜렷한 그림도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교도 계획이 있지만 법인화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시행과정에서 걱정하시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우수대학들이 법인체제를 선택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모교가 국내를 뛰어 넘어 세계 중심대학으로 도약을 해야되는 시점인 것이죠.

일본은 2004년에 모든 국립대가 법인이

법인 당연직 이사·재경위원장 맡아

모교 스키부 출신…틈틈이 스키장 찾아

원들의 반대가 있죠. 부총장님이 특수법인인 병원에 계셔서 본부 교수님들보다 법인에 대한 견해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나 법인화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신다면.

“서울대병원은 1978년 특별법에 기초해 법인화가 됐습니다. 법인화 이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러한 결정이 옳았음을 반증했죠. 당시에 법인을 할 것이냐, 의과대학 부속병원 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법인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결정한 이유는 바로 자율성이었거든요.

병원 법인과 마찬가지로 모교 법인화도 대학운영상 자율성을 확보해서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자율성을

됐고, 중국이나 국립싱가포르대, 홍콩대 등 아시아의 주요 대학이 이미 법인화가 된 것을 볼 때 모교가 법인화 된 현재 시점이 결코 이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교 법인화에 설정된 비전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입니다. 미션은 ‘창의적 글로벌리더 육성’, ‘선도적 학문기여의 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기여’입니다. 곧 동문들에게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기 중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련한 ‘글로벌 선도연구 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에 근접해 있는 분들, 혹은 신진연구자로서 두각을 내

는 분들, 또 교내 연구자 중에서도 어떤 창의적인 업적을 내신 분들에게 과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발전한 모교의 연구능력 향상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 법인화가 됐으니 이제 가능하겠네요. (웃음) 의대생 시절에는 스키부 활동을 하셨네요.

“모교 스키부는 1962년에 창설이 됐어요. 그 때는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다른 대학은 체육특기생이 있고 우리 대학은 특기생이 없어서 불리하잖아요.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배우는데 재학기간이 길어서 오래 연습해야 대회에 나가는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 의대나 치대 학생이 주가 됐고 체육교육과 학생 일부가 있었죠.”

— 의대는 좀 다르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모교도 예외는 아닌데요. 졸업하는 후배들이나 이제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자신이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즐겨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직장도 초임의 수준에 주된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앞날의 가치에 중점을 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른 분야를 배울 수 있죠. 또 이런 활동으로 새내기는 선배를 통해 팔로워십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선배가 되면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 작은 사회를 미리 체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대학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배들이 그런 부분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그럼 부총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언제였나요.

“의대 본과 3학년 개학을 앞둔 1972년도 2월이었는데 그때도 스키부 합숙 중이어서 강원도에 있었어요. 아침에 합숙소에서 훈련장까지 걸어가는데 우체국이 있어요. 그 날따라 이상하게 편지가 왔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체국에 들렸더니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부친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심한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져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1년 휴학을 했는데, 그 기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면적인 힘을 쌓아가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극복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33만 동문들이 건강해야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安興燮편집장·정리= 邊榮顯기자)

“연구 자율성 보장하되 책무 동시에 부과”

동문을 찾아서

한국연구재단 **李昇鍾** 이사장

유난히도 추웠던 2월의 끝, 하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엔 봄기운이 완연했다.

지난 1월 연간 예산 3조원 규모의 한국연구재단 수장에 부임한 **李昇鍾**(화학공학70-74)이사장을 만났다. 연구와 연구행정의 달인으로 소문난 **李**이사장은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로 보였지만, 재단 운영에 관한 비전을 얘기할 땐 강한 면모를 보였다. 한 마디로 외유내강형 智將이었다.

대답 : 尹在錫(프레스이안 이사)논설위원



— 모교에서도 중책(연구부총장)을 맡으시더니, 이번엔 한 단계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셨네요.

“2008년에 통합 전 과학재단의 기초연구본부장으로 봉사했고, 재단 통합 과정도 지켜봐서 어느 면으로 친정 같은 느낌입니다. 아는 직원들도 많고요.”

— 초대 이사장의 과제가 3개 기관 통합의 연착륙이었다면, 2대 이사장은 안정화, 그리고 3대 이사장님은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의 가동일 텐데요.

“사실 법인과 과정에서 모교 연구부총장에 전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묘하게도 지난 1년 **吳世正**(물리71-75)前이사장과 정말 자주 만났어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연구재단 정책과제를 수행했거든요. 재단 관련 사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하는 정책과제였어요. 당연히 재단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됐죠. 그 과정에서 ‘조직을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등등의 제언을 했는데, 얼마 있다 제가 오게 된 거죠. 제가 제안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아쉬운 점은 이미 지난 연말까지 했어야 하는데 이미 지나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애프터서비스 개념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죠.”

— 모교 부총장직을 중도하차 하신 건 아쉬움이 남는데...

“임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모교엔 죄송하죠.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이 여차피 연구 지원이니 모교와의 인연은 지속될 것이고, 아무래도 양쪽 사정을 잘 아니까 소홀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편애할 수는 없겠지만(웃음).”

— 통합 전인 2008년 과학재단 기초연구본부장으로 봉직하셨기 때문에 낙하산이란 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부담도 없지 않으시겠어요.

“**吳世正** 前이사장과의 스킨십이 큰 도움이 됐어요. 통합된 지 3년이 지났고 지난 연말 노동조합도 통합이 돼서 조직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재단 본연의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비전 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지향점은 어디인가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미국과학재단(NSF)을 따라갈까, 독일연구재단(DFG)·일본연구재단(JSP)을 벤치마킹하자, 뭐 이

• **李**이사장은

1952년생으로 경기고를 나와 모교 화학공학과를 거쳐 82년 미국 델라웨어대 화학공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영국 웨일즈대 응용수학과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 후, 84년부터 최근까지 모교 화학공학과에서 봉직했다. 모교 공대 교

무부장, 화학생물공학부장, 연구부총장 등 연구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학문 연구에도 내공이 깊어 특히 유변학(rheology)의 권위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한국유변학회 회장을 지냈고, 세계유변학회 정회원, 영국유변학회 정회원, 한국화학공학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코자 올해부터 한국형 그랜트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풀뿌리 기초연구자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공분야의 일반연구자 지원사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에 우선 시행합니다. 연구비 규모가 매년 5천만원 정도로 다른 사업에 비해 작지만, 이공계 연구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명 정도가 지원받게 됩니다. 이른바 ‘풀뿌리 연구 프로젝트’죠. 재단은 올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 4천3백억원으로 8천개 과제 내외를,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에 1백51억원으로 3백6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풀뿌리 연구의 요체는 평

노벨상 안겨줄 신진연구자 대폭 지원 모교 연구부총장 지낸 연구행정 달인

런 식이었죠. 그런데 각종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도 이미 지구촌의 리더로 떠올라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을 따라갈 수준은 넘어섰다고 봐요. 한국적인 연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연구시스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시스템을 한 번 배워 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포부라면 포부죠.”

— 그러려면 제도 정비가 우선인데, 앞으로 시행하시려는 제도를 설명해 주시죠.

“‘한국형 그랜트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비 규모가 작은 풀뿌리 기초연구라고 해도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결과 평가 ▲지원받은 비용 정산보고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가 많아 연구자

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평가를 하지 않으면 미구잡이식 연구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동안 연구비 지원 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보고서는 모두 성공으로 돼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연구가 성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른바 ‘성실 실패(honorable failure)’를 용인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서류를 간소화하고,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추후 연구 과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이전 그랜트 과제로 도출한 성과를 집중 평가토록 돼 있습니다. 또 5% 무작위 추출을 통해 연구비 집행결과에 대한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연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자에 대한 책무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 연구 부실과 연구비 오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죠.”

— 그밖에 개선되는 시스템은 어떤 게 있나요.

“연구재단 출범 때부터 시작한 ‘한국형 프로그램 매니저(PM)제도’를 보완·완성하기 위해 ‘책임전문위원(CRB: Chief Review Board)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구재단에는 상근 PM(본부장 3명, 단장 13명) 16명과 비상근 전문위원(RB) 2백84명이 연구기획부터 과제선정, 연구지원에 이르기까지 심사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구재단의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08년 4천9백36억원에 불과하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예산이 올해 9천7백5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곧 사업 수행을 위한 전체 업무량도 크게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M에게 집중된 과중한 업무량을 CRB에게 분산하고, CRB가 PM과 RB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CRB제도’를 시행하여 ‘한국형 PM제도’를 보완·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도전적 연구 분위기, 연구 환경 조성일 텐데요.

“우선 도전연구지원형 사업을 늘리고,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1907~72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살펴보면, 수상업적을 논문으로 발표했을 당시의 평균 연령이 38.7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48세로 대기만성형 과학자들이 늘었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후 10년 내외의 신진연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의지로 획기적인 연구를 시작, 결국 노벨상 수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재단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에 노벨과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줄 신진연구자 지원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 과학기술 쪽에 관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인문학의 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 안에 융합연구단이 있긴 합니다. 융합과학단, 나노융합단, 문화융복합단이 있는데, 그게 모두 각각의 융복합입니다. 이제는 文史哲과 數物化가 명실공히 융복합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한 이공분야 기초연구본부(1조원 규모) 쪽에다 융복합 연구를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융복합 연구에 돈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 **李明博**정부 출범 후 연구비 신청을 했던 일부 학자들이 배정 평가에서 당시자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배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몇 있었습니까.

“이공 분야는 아니고 인문사회 쪽에서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적 평가가 쉽지 않아 생긴 오해같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재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해야겠죠.”

(사진=安興變면집장·정리=玄智愛기자)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졸업식장의 주인공들에게 밝은 꿈과 기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신념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자랑스런 젊은이들이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잠들어있는 선배 동문들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 위에서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진보 과정의 근저에는 진정한 인재양성과 지식강국에 매진해온 대학인의 투혼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 서울대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졸업생들은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소중한 밑일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인의 진정한 자부심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경쟁을 통한 자기성취를 뛰어넘는 봉사과 배려의 정신,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미덕으로 재무장해 ‘나라가 있고 대학이 있다’는 생각과 ‘국민이 있어 서울대가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를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할 창조적인 지식인으로서의 포부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과 교양, 그리고 인격으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기 바랍니다.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사고, 단편적 지식을 극복하는 근본적 지성,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정신을 갖추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가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전통은 졸업생 여러분에 의해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비록 오늘 교문을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우리들은 늘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언제나라도 교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모교에 유학 왔다가 각자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도 자신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 큰 활약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새로운 시작에 설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교는 올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1895년 근대화의 꿈을 안고 시작된 모교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함께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정치, 사회분야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로서 사회적 본분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대인은 나라와 민족 앞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후배 동문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빛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돛에 가득 무역풍을 담고 탐험하며, 꿈꾸고,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은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세계를 향해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에 중심을 잃기도 할 것이며,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플사를 창립하고 아이폰을 출시해 IT업계는 물론 세계인의 문화마저 바꾸어놓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자신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쫓겨나고, 암과의 투쟁으로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세계인의 일상과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學際를 넘나들며 다면적 사고를 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사람만이 급변하는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총동창회의 신입 회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나갈 모교의 밝은 미래는 머지않아 곧 실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졸업식 ... 새 飛翔의 날개를 펴라

모교 제66회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총 5천2백14명 배출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尹勤煥·郭永駟·孔大植부회장, 모교 李賢宰·趙完圭·鄭雲燦 前총장과 吳然天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李在影교무부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6백51명, 석사 1천8백52명, 학사 2천7백11명 등 총 5

천2백1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졸업생은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소중한 밑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학제를 넘나들며 다면적 사고를 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사람만이 급변하는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비동문 尹潤洙회장 축사

이여 할라코리아 尹潤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가정환경과 모교 입학 시험에 3번 낙방한 일

화를 이야기하며 “최근 불확실한 세계 경제환경 등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만치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도전하는 자에게는 분명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부터 학위수여식 행사를 기점으로 특별 구성된 모교 교수합창단은 음대 金泳律(기악76-80)교수의 지휘에 맞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을 축가로 선사했다.

이번 졸업생인사는 성적을 기준으로 대표학생을 선정했던 관례를 깨고 역경을 이겨내고 성실히 학업에 임한 李東燮(식품영양08-12)군이 답사를 했다. 李군은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던 제게 장학금을 주시고 새싹멘토링 활동비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연소로 졸업한 자연대 생명과학부 南昌賢(19세)군 등 16명이 각 단과대학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24명, 석·박사 1백51명 등 총 1백75명이었다. 〈榮〉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 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180	11,491
사 회 과 학 대 학	331	15,371
자 연 과 학 대 학	202	11,381
간 호 대 학	59	3,570
경 영 대 학	159	7,301
공 과 대 학	612	44,663
농 업 생 명 대 학	236	21,473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70	5,501
법 과 대 학	201	16,789
사 법 대 학	197	26,521
상 과 대 학	—	6,723
생 활 과 학 대 학	79	4,338
수 의 과 대 학	32	2,366
약 학 대 학	80	6,350
음 악 대 학	129	7,835
의 과 대 학	143	11,637
치 과 대 학	—	6,049
자유전공학부	1	1
대 학 원	1,918	93,790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67	752
보 건 대 학 원	59	3,509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58	4,647
환 경 대 학 원	59	2,730
치 의 학 대 학 원	95	348
융합과학대학원	30	53
경영전문대학원	97	513
법학전문대학원	120	122
소 계	5,214	327,682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609	20,271
총 계	5,823	361,291



다양한 졸업식 축하공연

모교 학위수여식 행사가 매년 진화하고 있다. 모교는 그동안 졸업생들이 식장에 불참하는 관례를 깨기 위해 식전행사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통 선비 의상을 본뜬 새 학위복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졸업생을 위해 행사장 전면에 외국인 졸업생을 1명이라도 배출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했다.

모교 행정대학원 俞靜雅(사회85-89)초빙교수가 진행을 맡은 행사에서는 모교 기악과 金泳律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이 졸업생을 축하하는 공연

을 시작했다. 이어 재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댄스 동아리, 남성중창단 등이 공연을 통해 많은 졸업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에도 50여 명의 교수로 구성된 ‘SNU Faculty 합창단’이 단연 인기였다. 졸업생을 위한 축하에 이어 행사 후에도 ‘가요메들리’를 열창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학위예복을 새롭게 디자인한 생활대 金敏子(가정교육67-71)교수와 작곡가 유희열(작곡90-04)동문은 특별 동영상 통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날 1990년대 여자 빙상 스타였던 김소희 씨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42년 전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손위영(법학03-1259세)씨가 최고령 졸업장을 받았다.

입학식 ... 천하의 俊才들이 靑雲의 꿈을 펴라

“인간됨 갖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본회에서 신입생 전원에게 도서 선물



모교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吳然天총장,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郭永駟·洪性大부회장, 신

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李在影교무부처장은 학사보고를 통해 “학부생 3천2백90명, 석·박사 3천8백52명 등 2012년 신입생은 7천1백42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대학 국악과 白恩斌양이 신입생을 대표해 선서

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

을 가꾸어 나가며 자기주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입학식 축사는 노벨상 근접 여성과학자로 유명한 모교 자연대 생명과학부 白盛禧(식품영양 90-94)교수가 맡았다. 白교수는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난 것이고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중요하다”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음의 특권으로 세계를 향해 여러분의 능력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자유전공학부 朱京哲(경제79-83)교수가 집필한 도서 ‘대항해시대’를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했다.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신입생 여러분의 서울대학교 입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가꾸어나가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배로서, 모교의 교수로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느꼈던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에서는 중·고교 시절과 달리, 여러분이 지식 탐구의 주체로서 관심 있는 주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물과 현상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학습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입장을 지키면서 자신이 조명하는 주관적인 가치관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창조적 가치와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교시절 국어시간에 배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 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구절처럼 ‘인간됨’, ‘사람다움’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대학교육 나아가 민주국가 시민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이 비옥한 토양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줄기와 잎사귀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전공과 목표를 불문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견고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입생 여러분께 폭넓은 사고로 학습에 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학제적 기반교육’을 통해 폭넓은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전공분야에서 도전적 탐구정신을 촉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관 관장에 權寧傑교수 임명



지난 2월 7일 미술관 관장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權寧傑(응용미술69-76) 교수(사

진)를 임명했다.

이화여대 교수를 거쳐 1998년 모교에 부임한 權관장은 모교 미대 학장,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 본부장, 색채학회장,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 국회 공공디자인문화 포럼 공동대표,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金仁杰원장 임명

지난 2월 2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에 인문대학 국사학과 金仁杰(국사71-75)교수(사진)를 임명했다.

1998년 모교에 부임한 金관장은



모교 규장각 자료연구부장을 비롯해 모교 국사학과장, 한국 역사연구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모교 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역사 입문’(공저) 등이 있다.

생활대 학장에 余禎星교수 임명



지난 3월 1일 생활과학대학 학장에 소비자자이동학부 余禎星(가정관리 79-83) 교 수

(사진)를 임명했다.

余학장은 인하대 교수를 거쳐 1993년 모교에 부임 후 모교 연구부처장·교무부처장,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부회장, 미국소비자학회 편집위원, 한국조사연구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白盛禧교수 축사 〈요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이렇게 가까이에 서 축하드릴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멋지게 잘 구성된 축사보다 여러분과 연배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 대학 선배이면서 동시에 9년차 현직교수로 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소박한 이야기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

난 것입니다. 저는 1999년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도미했습니다. 그 미국 연구실에는 약 40명의 박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어려운 주제라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시작하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했는데 때마침 제가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때 잘 배웠던 익숙한 실험기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남보다 더 노력하면서 얻은 값진 연구 성과 덕분에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올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저에게 기회가 찾아와 주었던 행운의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기에 오늘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명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면서 사는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셋째,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서울대에 입학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특권을 이용해서 세계를 향해 맡껏 여러분의 능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스웨덴 ‘헨릭슨’ 총장에 명예의학박사학위 수여

모교는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KI, Karolinska Institutet) 해리엇 발베리-헨릭슨(Harriet Wallberg-Henriksson) 총장(56세)에게 명예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해리엇 발베리-헨릭슨 총장은 임상생리, 당뇨병 분야에서 세계 유수 저널에 1백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온 세계적인 의학자이며,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선정을 주관하는 카롤린스카 의학원 노벨상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계기로 모교는 양 대학의 학술교류와 연구활동이 한층 확대되고, 한·스웨덴 양국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모교는 1948년 첫 수여 이래 사사키 다케시 前동경대 총장, 潘基文 UN 사무총장, 벨기에 이브 레테를 총리 등 1백9명(외국인 98명, 한국인 11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朴漢濟교수 등 32명 퇴임

지난 2월 2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32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열렸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

음과 같다.

朴漢濟(동양사학)교수, 마크 시더리츠(Mark Siderits 철학)교수, 崔夢龍(고고미술사학)교수, 崔聖載(사회복지학)교수, 池東杓(수리과학)교수, 申菊朝(화학)교수, 尹都寧(화학)교수,

安泰仁(생명과학)교수, 高哲煥(지구환경과학)교수, 趙成權(지구환경과학)교수, 林鍾沅(경영학)교수, 劉丁烈(기계항공공학)교수, 成宏模(전기공학)교수, 禹治水(컴퓨터공학)교수, 李昶勳(산업공학)교수, 李昇九(식물생산과학)교수, 李敦求(산림과학)교수, 데미언 무가빈(Damien Mugavin 지역시스템공학)교수, 韓雲晟(서양화)교수, 李興在(법

학)교수, 權炳杜(지구과학교육)교수, 李連淑(식품영양학)교수, 金柄國(의학)교수, 金容植(의학)교수, 金周顯(의학)교수, 金賢執(의학)교수, 吳承根(의학)교수, 張基賢(의학)교수, 金基浩(환경조경학)교수.

한편 權寧珉(국어국문학)교수, 李明哲(의학)교수가 명예퇴직했으며, 梁碩徹(의학)교수가 의원 면직했다. (榮)

모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4백86명에 10억7천여만원 전달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吳然天)은 지난 2월 27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2012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발전기금은 올해 1천여 명의 재학생에게 약 2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에는 4백86명에게 10억7천5백만원을 수여했다.

발전기금 安芝賢(영문88-92) 모금지원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모교 吳然天총장은 “모교 재학생 때 받았던 ‘석전장학금’으로 당시 행정고시를 1년

단축해 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며 자신의 일화를 소개한 뒤 장학생들에게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부자인 동진씨미켄 李富燮(화학공학56-60)회장을 대신한 李駿赫(화학공학85-89)사장은 격려사에서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앞선 세대의 당연한 도리”라며 “열정 가득한 후배들을 후원하니 매우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각 기금별로 장학증서 전달식을 마친 후 신은혜(교육08입)양이 장학생을 대표해 감사의 뜻이 담긴 답사를 했다.

2부 만찬에서는 장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출연자에게 전달했으며, 모교 음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색소폰 4중주 공연단이 연주를 통해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장학생들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鄭喆永학생처장, 南益鉉기획처장,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金炯周상임이사를 비롯해 기부자와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발전기금 내에는 1백70개의 장학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매

년 10여 개의 새로운 장학기금이 추가로 설립되고 있다. 발전기금은 1999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 지금까지 8천1백여 명의 학생에게 약 1백7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7년 2학기부터 기부자와 장학생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吳然天총장·成耆鶴대표

成耆鶴동문

발전기금 10억원 쾌척

지난 2월 28일 골드윈코리아 成耆鶴(무역66-70)대표가 모교 발전기금에 ‘노스페이스 학술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했다.

상과대학동창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成대표는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비롯해 지난해 모교 글로벌 봉사단에게 항공과 숙식 2억원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모교 발전을 위해 후원해 오고 있다.

이번에 成대표가 기부한 금액은 모교 경영대와 사회대 경제학부의 교육·연구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모교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두산인프라코어 라틴연구소에 2억원



吳然天총장·金用盛대표

지난 2월 3일 두산인프라코어(대표 金用盛)가 모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소장 金昌民)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

모교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吳然天총장, 두산인프라코어 金用盛(무역80-84)대표,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발전기금은 기업의 취지에 따라 브라질 관련 학술 서적 번역·출판,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 개최, 관련 도서 및 자료 구축, 브라질 문화 전파 등 양국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

3개 과를 ‘융합과학부’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원장 安哲秀 이하 융대원) 내에 3개 학과가 이르면 2013년부터 단일 학부로 합쳐진다.

지난 2월 20일 평의원회 심의에

서 현재 융대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 학과 가운데 나노융합학과·디지털정보융합학과·지능형융합시스템학과를 ‘융합과학부’로 통합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번 통합안은 安원장 부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방안 중 하나로 최근 安원장이 방미 중에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융대원은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부터 3개 학문의 세부 전공은 유지하면서 신규 전공을 개설하는 등 탄력적으로 융합 과목을 운영하고, 향후 입학본부와 협의 거쳐 학과 통합에 따른 모집단위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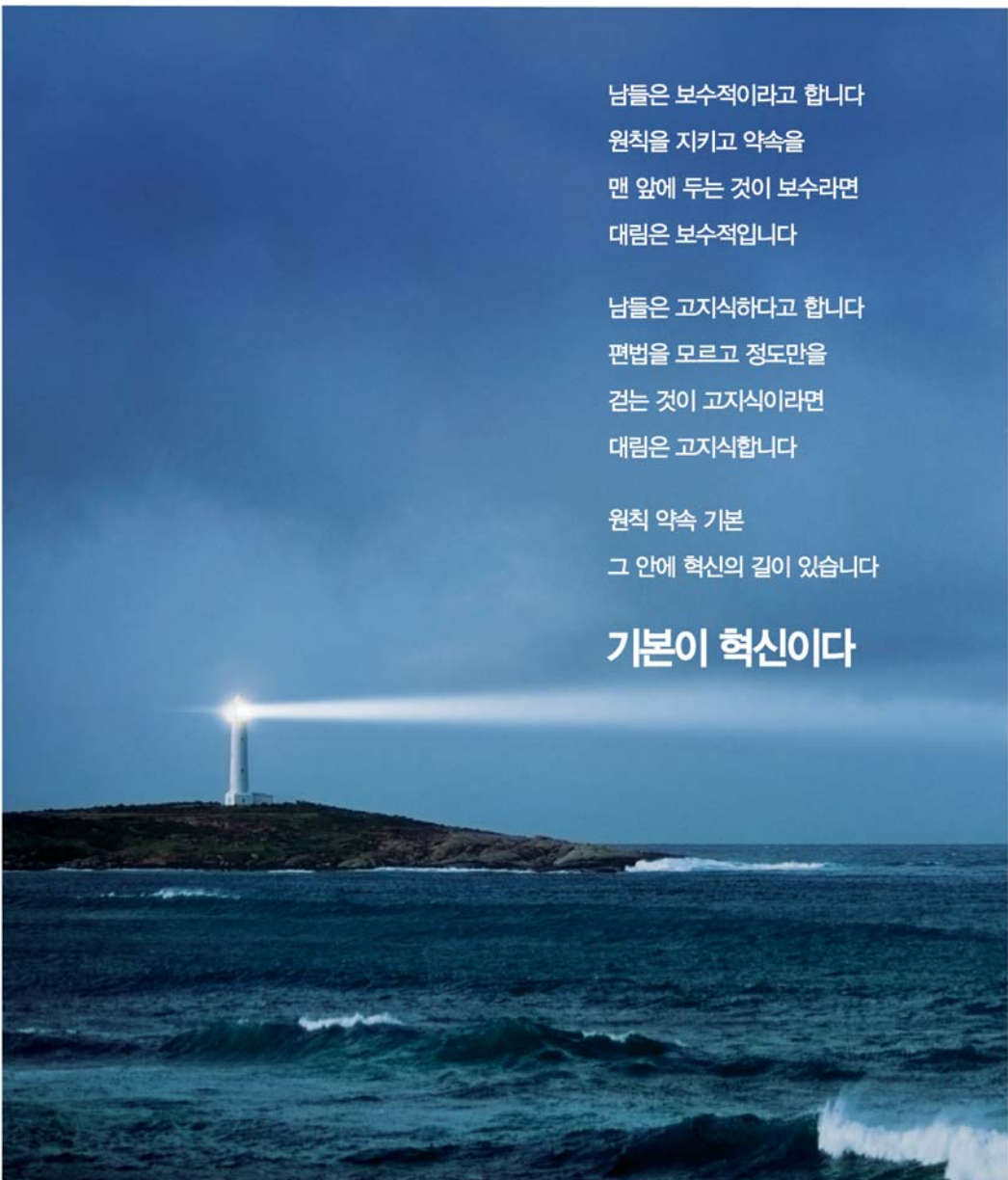
사회발전연구소

SNCC 개소식 열어

모교 사회발전연구소(소장 張德鎭)는 지난 2월 22일 관악캠퍼스 사회발전연구소(220동) 오픈세미나실에서 소셜네트워크 컴퓨팅센

터(센터장 金倚勳 이하 SNCC)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모교 산업공학과 趙成俊(산업공학79-83)·사회학과 李在烈(사회80-84)교수를 비롯해 LG CNS 高賢鎭(경영74-81)부사장 등 각 기업 대표와 교내연구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DAELIM

행복한 교과서 만들기 47년, 국어 교과서는 역시 "지학사"입니다!!



국어 교과서 집필진 116인,
현장 교사 검토진과 편집진 165인,
디자이너, 사진·컷·삽화가 136인,
조판·제판·인쇄 등 제작 참여 173인,
국어 교과서 수록 글감과 자료 제공 900여 인,
그 외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지학사 국어 교과서 8종 32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 부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바친 여러분 덕분에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국어교육을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교과서이기에
더 자랑스럽고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학사는 또다시 많은 분들과 함께
“2013년 적용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국어 교과서를 제공하기 위해
지학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학사 국어 교과서 8종 32책 | 중학교 국어·생활 국어(방민호) 1-1, 1-2, 2-1, 2-2, 3-1, 3-2 / 중학교 국어·생활 국어(이웅남) 1-1, 1-2, 2-1, 2-2, 고등학교 국어(방민호) (상), (하) / 고등학교 국어(박갑수) (상), (하) / 문학(권영민·방민호) I, II / 문학(최지현) I, II / 독서와 문법(이삼형) I, II / 화법과 작문(이삼형) I, II

지학사 (주)지학사

CHARM JINJU
참진주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매력적인 기업투자 도시 진주

활력있는 경제도시 **진주**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 보십시오!

진 주 시
www.jinju.go.kr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KB 금융그룹

놀라움
상계도

내가 원하는
카드혜택을
내 맘대로
조절한다



KB국민 헤담카드란?

일상 생활서비스는 기본! 12가지 라이프스타일서비스를 내 맘대로 선택하여 한 장에 담아내는 새로운 맞춤형 카드입니다

당신의 카드생활을 똑똑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

주유, 쇼핑, 마일리지 등 12가지 라이프스타일서비스와 2단계 혜택의 구간을 선택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주세요



※ 안내된 서비스는 개별제공조건이용실적/빈도 등이 존재하며, 서비스 선택에 따라 연회비가 별도 부과됩니다. ※ KB국민 헤담카드의 주요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연속 사용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비용, 변경비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통보되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합니다. ※ KB국민 헤담카드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및 콜센터(1588-1588)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콩트 릴레이

어적도 백일몽

정 다 운(신대원67-70)

본명 鄭大秀, 소설가



2011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북한 의주군 어적도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중국 쪽.

정명철은 서슴없이 조종 국경선을 넘어섰다.

1990년대 중반 기근사태 이후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던 북한 사람들이 국경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은 얘기를 종종 들어 왔지만 설마 북한으로 건너가는 사람이야 총으로 쏘겠는가 싶어 용기를 냈다.

더군다나 좁다란 새강을 경계로 한 중국 땅 강변에 서 있던 표지석이 그를 유혹했던 것이다. 그 표지석에는 ‘한발만 뛰어 넘으면 된다’(一步跨)는 알곳은 문귀가 새겨져

향했다.

징검다리 앞에 선 정명철의 머릿속에서는 8·15광복, 38선, 6·25전쟁의 역사적 고비가 만화경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오늘날의 남북관계에 생각이 미치자 지난해에 일어났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잇달아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안타까움에 젖어 있던 그는 이윽고 징검다리에 한 발을 내디뎠다. 작가모임에서 마련한 압록강 연변 답사여행에 참가한 김

“나는 남한에서 온 작가 정명철이요. 동무들이 수고 많은 것 같아서 소주 한 잔 하러 왔어요.”

“니거이 맴네까?”

병사는 정명철이 내미는 소주와 포를 보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물었다.

“아 이거 소주하고 안주요. 저기 초소에 가서 한 잔 합시다.”

둘이 주고받는 사이 뒤따르던 병사가 다가왔다. 조장쯤 돼 보이는 그는 정명철의 월경의도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주위를 한 번 둘러 본 후 손을 내밀었다.

“작가 선생, 반갑수다. 내래 경비초소 조장이요. 공화국 땅에 왔으니 손님이나 마찬가지로 영접하네.”

조장은 손님이니까 초소에 가서 한 잔하고 돌아가라며 앞장서서 안내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초소는 서너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만한 크기였다.

“내래 조장 정동철이야요. 반갑수다래. 남조선 작가 선생이 우리 초소를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네다.”

“나는 소설을 쓰는 정명철이라고 합니다. 북한 동포를 한 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적도가 지적에 있는 걸 보고 건너왔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소주나 한 잔 하려고 온 겁

위하여!”

정명철이 흥이나 함경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축배를 권했다.

그러자 정동철은 공화국에 온 손님에게 노래를 선사한다며 ‘반갑습니다’를 선창하기 시작했다.

“동포 여러분, 친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은 넓디넓은 어적도 들판에서 조장도, 병사도, 정명철도 한데 어우러져 ‘반갑습니다’를 연발하며 남북 간의 압박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 사이 전화 벨 소리가 몇 번 따르릉거렸지만 누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 순간 어적도 한 초소가 용광로로 변해 수십 년 간 쌓인 갈등이 그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다.

남북 사나이 셋이서 어울림 한마당을 놀아본 끝에 작별을 고했다.

이때 갑자기 초소 밖에서 총성이 들렸다. 조장과 경비병이 소총을 미쳐 집어들 시간도 없이 정치보위부 군관이 권총을 꺼내 들고 들이닥쳤다.

“간나 새끼, 끄작 마!”

눈을 부리린 군관의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다. 옆에 선 소대장과 분대장 역시 엄호사격 자세로 그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정명철은 순간 경악했다.

— 이거 어찌 된 일이나?

정명철이 어적도 한복판에서 경비병들과 겹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 어적도 일대 국경 경비를 관할하는 중대 본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소대장으로부터 어적도 제3초소에서 30분이 지나도록 정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였다. 마침 자리에 있던 정치보위부 군관이 낚새가 좋지 않다며 서둘러 제3초소로 향했다. 국경 경비대에서 악명이 높은 정치군관은 노래 소리를 듣고 한 동안 밖에서 초소 안 동정을 살폈다. 그는 사태를 파악한 후 오늘 따라 한건 하기로 작심한 듯 거세게 나왔다.

“분대장 동무, 뭐하고 있습네. 간나 새끼들을 체포하지 았구 서리!”

당황해 있던 정동철은 체포라는 말에 억울하다 싶어 대꾸했다.

“군관 동지, 말 좀 들어 보시라우요.”

“뭐야 이 새끼. 조장이라는 새끼가 남조선 반동분자 하고 술 쳐먹고서리 머이 어드래!”

군관은 고함을 짹 지르며 정동철의 머리를 권총으로 갈겼다.

정명철은 다급해진 김에 한마디 했다.

“내가 잘못 했어요. 조장은 죄가 없어요.”

“뭐야. 남조선 아 새끼가….”

군관은 권총으로 정명철의 이마를 갈겼다.

눈앞에 별이 번쩍거렸다.

악! 소리를 지를 사이도 없이 이마를 싸 쥐고 뒤로 넘어졌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창바이현 호텔 의자에 앉아 즐고 있다가 뒤로 제쳐지는 바람에 넘어졌던 것이다. 주변에는 단둥에서 창바이현까지 오는 동안 압록강 연변 북한 땅을 바라본 소감이 적힌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어적도 백일몽을 꾸 후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 1960년 4·19혁명 후 한때 대학생들 간에 회자됐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도 이처럼 멋모른 채 발동한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던 것이 아닌가.

“

아무도 보이지 않은 넓디넓은 어적도 들판에서 조장도, 병사도, 정명철도 한데 어우러져 ‘반갑습니다’를 연발하며 남북 간의 압박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 사이 전화 벨 소리가 몇 번 따르릉거렸지만 누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 순간 어적도 한 초소가 용광로로 변해 수십 년 간 쌓인 갈등이 그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다.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있었다.

근년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관광객이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 지역을 찾는 회수가 부쩍 잦아지자 중국 측이 상술로 이런 표지석을 세워 놓은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표지석 바로 앞에는 불과 3미터 남짓한 새강이 있는데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지만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표지석의 문귀가 어울리는 장소였다.

일행이 이 표지석 옆에서 사진을 찍고 ‘야 정말 가깝네. 저기가 바로 북한이라니!’ 하며 제가끔 한마디씩 던지고 있던 사이 정명철은 그 징검다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잔걸음으로 불과 1, 2분이면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징검다리 건너 언덕이라고 해봐야 그것 또한 불과 2, 3미터 높이에 불과했다. 거기다가 언덕에 처진 철조망은 지난해 홍수로 넘어진 뒤 보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들판 쪽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던 정명철은 슬그머니 일어나 가까운 호장산성 입구 매점으로 갔다. 소주 두 병과 안주거리 포를 한 봉지 샀다. 일행이 호장산성으로 올라 간 사이 그는 천천히 징검다리 쪽으로

에 초소 경비병부터 몸소 부딪쳐 볼 심산이었다.

징검다리를 건너 쓰러진 철조망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북한 땅이었다.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도, 즐거움도 아닌 아릿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말로 표현하기가 구차스러울 만큼 몽클하는 감흥을 억제할 수 없었다.

— 아, 여기가 바로 북한인가. 우리 땅 우리 조국일진대 왜 이다지도 마음이 착잡할까.

그때 1백 미터 정도 떨어진 국경초소에서 병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순 긴장했던 정명철은 이때다 싶어 소리를 질렀다.

“선생, 남한에서 온 사람이요!”

“거기 서시라우요!”

정명철이 정치명령에 따르자 병사는 앞으로 달려 나왔다. 그의 뒤로 또 한 명이 나타나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여전히 소총을 겨냥한 채 다가선 병사는 잠시 정명철의 손에 든 소주와 포에 시선을 준 후 다그쳤다.

“동무,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요. 국경 침범죄로 체포하잖어.”

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은 우리 병사 고병구입네다.”

조장은 병사를 소개했다.

“자, 조장 동무 한 잔 받으시오.”

정명철이 종이컵을 내밀며 술을 따르자 조장은 얼른 두 손으로 받아 들였다.

“고맙습네다. 고맙습네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처음에 긴장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누그러져 갔다. 조장은 농담까지 할 정도였다. 특히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 친근감이 더했다.

“작가 선생 성함이 저와 가운데 자만 틀려 마치 형제처럼 보이지 않습네까. 형님이 오셨으니 축배를 들자구요. 하하하.”

이렇게 말문이 트이자 정명철은 북한 땅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들과 자연스런 말 섞기에 빠져들었다.

“내래 오늘 공화국 동생이 하나 생겼구먼… 자 동생 고생 많지. 한 잔 해.”

“형님, 니거이 우리 동포끼리 교류 아님네까. 남북통일도 니렇게 동포끼리 만나서 이룩해야 됩소꼬망.”

“길티, 길티, 기령쥬구. 자 동포끼리를

동 정

수 상

▲池憲澤(치의학43-47 前대한배구협회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최근 대한배구협회로부터 특별공로상 수상.

▲辛東韶(임학53-57 모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지난 2월 24일 국내외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포장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卞柱仙(영어교육60-64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사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오는 3월 29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유관순위원회로부터 제11회 유관순상 수상.

▲崔鴻圭(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시인)=지난 1월 27일 한국농민문학회가 수여하는 제19회 한국농민문학상 수상.

▲崔鍾庫(법학66-70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3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趙錫俊(기상73-77 기상청장)=지난 2월 6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44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태풍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인 공로로 '칸타나상' 수상.

▲睦榮俊(법학74-78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2월 1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柳振寧(화학공학75-79 LG화학 부사장)=지난 2월 1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경영인상(최고 기술경영자 부문) 수상.

▲尹保鉉(의학75-79 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지난 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법의학상 수상.

▲朴英娥(물리79-83 국회의원)=지난 2월 15일 한국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협회로부터 제1회 의학교육대 의실전상 수상.

▲黃炳俊(전기공학87-91 사운드미러 코리아 대표)=지난 2월 12일 미국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5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고기술상(클래식 부문) 수상.

▲尹義漢(AIP 23기 대장 기술연구소장)=지난 2월 1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경영인상(연구소장 부문) 수상.

인 사

▲洪承昊(불문57-62 前주자이르 대사·시인)=지난 1월 26일 도 불문인협회 회장 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장에 선임.

▲李炯均(정치59-64 인하대 객원교수·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3일 대한언론인회 편집고문에 선임.

▲元佑鉉(행정61-65 고려대 명예교수·미국 UCSD 초빙교수)=지난 2월 10일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 초대 원장에 취임.

▲高興吉(정치62-66 前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국회의원)=지난 2월 24일 특임장관에 임명.

▲朴容炫(의학62-68 두산그룹 회장·의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지난 2월 21일 한국메세나협회의 제8대 회장에 선출.

▲李泰植(외교64-70 前주미 대사)=지난 2월 2일 연합뉴스 제3기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李佑喆(법학67-71 前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前생명보험협회장)=지난 2월 24일 코람코자 산신탁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

▲韓惠洙(경제67-71 前국무총리·前주미 대사)=지난 2월 22일 한국무역협회 제28대 회장에 선임.

▲李明哲(의학67-73 모교 핵의학 교실 교수)=지난 3월 5일 가천대 길병원장 겸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에 취임.

▲朴瑋培(항공공학70-74 인하대 교수)=지난 2월 15일 임기 4년의 인하대 제13대 총장에 선임.

▲金錫滿(지리70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월 27일 임기 3년의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에 선임.

▲朴君哲(원자핵공학71-75 모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지난 2월 19일 한국전력 학교법인인 국제원자력대학원대 초대 총장에 선임.

▲鄭海文(무역72-76 前부산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前주태국 대사)=지난 2월 9일 한·아세안센터 제2대 사무총장에 임명.

▲崔炳德(법학72-76 前울산지방법원장·수원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

▲郭守根(경영73-77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2월 13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

▲李達坤(전자공학73-77 前행정안전부 장관·가천대 석좌교수)=지난 2월 15일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伯(법학73-77 前제주지방법원장·인천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특허법원장에 임명.

▲金澤秀(법학73-77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에 임명.

▲李鎔斗(철학74-78 前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지난 2월 17일 소상공인진흥원 제3대 원장에 선임.

▲金相薰(경제74-78 광운대 교수·국방부 자문위원)=지난 2월 14일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학회 회장에 취임.

▲金明俊(계산통계74-7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연구본부 연구위원)=지난 3월 1일 한국정보과학회 제27대 회장에 취임.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결혼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李鎭盛(법학74-78 前법원행정처 차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광주고등법원장에 임명.



▲朴炳柱(의학74-80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오는 4월 개원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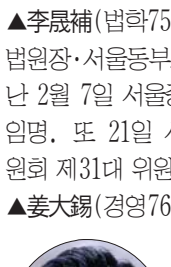
▲權映壽(경영75-79 LG화학 사장)=지난 2월 1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한국스프츠산업협회 제4대 회장에 취임.



▲禹基鍾(경영75-79 통계청장)=지난 2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선출.



▲陳泳坤(경영75-79 前정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지난 2월 13일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임명.



▲李晟輔(법학75-79 前청주지방법원장·서울동부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 또 2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31대 위원장에 취임.



▲姜大錫(경영76-80 前신성투자자문 대표)=지난 2월 10일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金二煥(기계공학76-80 前정와대 과학기술비서관)=지난 2월 15일 임기 3년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 부회장에 선임.



▲洪東昊(경제79-83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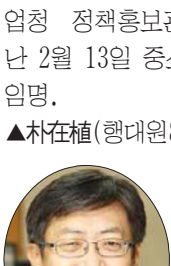
▲河智潤(농경제81-85 前조인스닷컴 대표)=지난 2월 15일 창간한 인터넷신문 퍼플뉴스대표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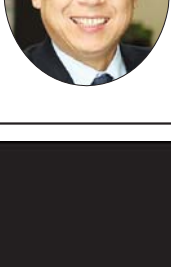
▲崔炯斗(사회81-88 前문화일보 AM7 편집장·논설위원)=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임명.



▲李昌炫(농생물82-86 국민대 교수)=지난 2월 17일 임기 3년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임명.



▲金淳哲(행정85-88 중소기업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청 차장에 임명.



▲朴在植(행정85-88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

▲徐萬哲(ACAD 63기 공주대 총장)=지난 2월 14일 임기 1년의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제18대 회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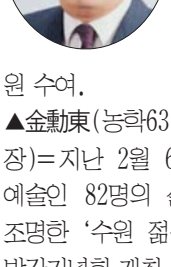
▲李世漢(AIC 11기 GT&T 대표·AIC 동창회장)=지난 2월 20일 한국전과진흥협회(RAPA) 제2대 감사에 선임.



▲邊衡尹(경제45-51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지난 2월 17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李明博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俞東濬(잠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2월 24일 전국 대학(원)생 1백17명에게 장학금1억2천만 원 수여.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2월 6일 수원의 젊은 예술인 82명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수원 젊은 예술인 선집' 발간기념회 개최.



▲金春玉(회화64-68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인하대 겸임교수)=지난 3월 2~16일 대구 맥향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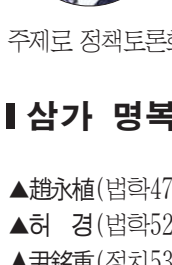
▲孫海鎰(잠사67-75 서초문인협회장)=최근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문학서초' 제15호 출판기념회 및 제9회 서초문학상 수상식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 6·25국가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정세진단' 특강.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상임대표·관악회 이사)=지난 2월 24일 '보육정책 및 가족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 ▲趙永植(법학47-50 경희학원 설립자)=2월 18일 별세(91세)
- ▲허 경(법학52-56 남농미술문화재단 이사장)=2월 21일 별세(79세)
- ▲尹銘重(정치53-57 한국언론인포럼 회장)=2월 28일 별세(77세)
- ▲吳炳浩(건축54-58 동남주택 회장)=2월 6일 별세(83세)
- ▲李碩柱(농생물54-58 前농약공업협회 상무)=2월 15일 별세(81세)
- ▲李大源(경제54-58 환면무역 대표)=2월 6일 별세(80세)
- ▲李善宇(화학공학55-59 前호남석유화학 전무)=2월 20일 별세(77세)
- ▲韓榮國(사학55-59 前인하대 교수)=2월 7일 별세(75세)
- ▲金左朱(영문60졸 前주불가리아 대사)=2월 15일 별세(78세)
- ▲金正國(행정61-65 前문화일보 사장)=2월 17일 별세(73세)
- ▲崔漢倍(경영71-75 대주전자재료 부회장)=2월 8일 별세(61세)
- ▲李承基(외교79-83 한국녹색회 정책실장)=2월 11일 별세(52세)
- ▲宋炳循(AMP 9기 前은행감독원장)=2월 15일 별세(83세)
- ▲金 漣(ACAD 18기 前체육부 장관)=2월 4일 별세(86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혜택은 물론 차별화된 만남 주선, 동문미팅파티 등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대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소망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2010
협찬제품



美 FDA·
IBWA (국제생수협회)
적합 판정



[천년동안 후원]

- 국내
 - 2011.2 구제역 피해지역 지원(260,000병)
 - 2011.2~ 한국스카우트연맹 후원(7,400병)
 - 2011.3 세계스포츠키자연맹 후원(2,000병)
 - 2011.3 한국여자축구연맹 공식후원(120,000병)
 - 2011.5~2012.7 런던올림픽 우송기원 국가대표배드민턴선수단 후원(9,000병)
 - 각종 스포츠 대회 후원
- 국외
 - 2011. 3 일본 지진 피해지역 지원(100,000병)
 - 2012. 1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 지원(50,000병)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정기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각 가정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천년동안의 특별함 회원가입문의 080-329-2000

천년동안은 북극 그린란드에서 발원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 천년 동안 순환된 해양심층수입니다.

- ✓ 동해 최북단 청정해역 고성, 수심 605m 해양심층수
국내 유일의 이음매 없는 단일 취수관을 사용해 청정성,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 일반생물 대비 최고 16배 이상의 풍부한 미네랄
천연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을 주며 미네랄이 이온화되어 있어 체내흡수율이 빠릅니다.
- ✓ 최적의 미네랄밸런스 Mg:Ca:K = 3:1:1
인체구성비와 유사한 마그네슘3: 칼슘1: 칼륨1로 균형잡힌 미네랄공급이 가능합니다.

• 용량 350ml (1팩 당 20병) / 1.2L (1팩 당 9병)

(주)강원심층수는 교육기업  그룹, 강원도, 고성군, 일본의 KIBI 시스템의 민관투자합작법인입니다. www.k1water.co.kr



<http://www.dmco.co.kr>

열정과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THE BEST BUSINESS PROVIDER



스파이럴 스트림



로봇청소기 배터리



밥솔용 코드릴



다목적코드릴



3p자동코드릴



청소기용코드릴



도어락 스위치

● POWER CORD ● 진공 압력 스위치 ● 콘센트 ● 밥솔용 CORD REEL ● 다목적용 CORD REEL ● CORD REEL ASS'Y ● 도어락 스위치



두얼메카닉스(주)
DUAL MECANICS CORPORATION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947 고부농공단지4블럭 TEL : 063-536-8900~2,3 FAX : 063-536-8903



롯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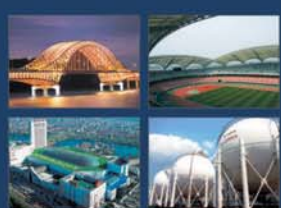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이 함께 합니다

가던 길만 가는 기업은 가던 길만 갑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기업이 있기때 꿈 같은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광, 유통, 주거시설은 물론 토목, 플랜트, 해외분야까지 -
롯데건설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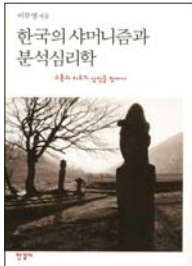
롯데건설 한국서비스대상
10년 연속 수상(2002~2011)
아파트 부문 大賞

신 간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 李符永 지음



정신과 의사인 한국웅 연구원 李符永(의학52-59) 원장이 샤머니즘에 대한 문화정신의학적 연구를 모아 정리한 책.

총 14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李동문은 인간의 병고와 죽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시적 의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살펴봄, 원시적 관념과 행위가 상징적으로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정신병리적 체험내용의 상징적 해석을 통해 병자들의 호소를 이해하고 무의식에 활성화되는 치유의 상징을 제시했다. (한길사刊·값32,000원)

■ 칠금산(七金山)

— 高濬煥 지음



경기도 법대 高濬煥(법학61-65) 명예교수가 남북을 통합한 대한근현대사 실록을 펴냈다. 高동문은 남북분단 이후 민족상잔을 겪으며 南은 수정자본주의로, 北은 수령제 사회주의로 가서 북조선 연구에 많은 장벽과 어려

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각 주요인물에 대해 장단점을 함께 기록하는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했다고 말한다.

제목 七金山은 인물을 산에 비취 금(金)은 김이므로 金九를 비롯해 金泳三·金大中·金鍾泌과 북한의 金日成·金正日 그리고 黃金山(남한 黃禹錫·북한 金鳳漢)을 가리킨다고 소개한다. (올리브그린刊·값20,000원)

■ 통제경영의 종말

— 盧富鎬 지음



교수가 불연속적 변화의 시대에 한국경영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신경영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盧교수는 정보화시대는 경영과괴의 시대이며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이에 한국경영의 혁명적 변화는 우리의 사고, 관행, 제도의 파괴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강조하며 총 3부에 걸쳐 앞으로 한국경영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21세기북스刊·값22,000원)

■ 우리 음악 어디 있나

— 李東植 지음

KBS비즈니스 李東植(영어교육72-76 본보 논설위원)감사가 한류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 K-팝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음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



진모리, 휘모리 등 우리 고유의 가락에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적 문법을 더해 해석하고 있다. 우리의 음악이 서양의 음악과 서로 종류와 표현방식이 다른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음악회에서도 베토벤이나 브람스만이 아니라 우리 작곡가들의 작품을 넣어 창작을 육성하고자고 역설한다. (북성재刊·값15,000원)

■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 李泰東 지음



서강대 영문학과 李泰東(대학원81-88) 명예교수의 산문집으로 지난 5년 동안 어렵게 써온 글들과 이미 써놓은 글 가운데 정수만을 가려 뽑아 수정해 엮었다.

李동문의 꺼지지 않는 의식의 눈과 통찰력으로 발견한 삶의 아름다운 진실과 그 내면적인 진실을 언어로 바꿔 이야기한 것으로, 잃어버린 순간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절제의 미학과 침묵의 무게로 써내려가고 있다.

작지만 더 소중한, 평범하지만 더 특별한, 축복 같은 일상과 사람들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와 통찰이 오롯이 담겨있다. 李동문이 램프를 수집하는 이유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등을 이야기하는 인식론적이고 탐색적이며 명상적인 글들은 인생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준다. (김영사刊·값12,000원)

공연

■ 소프라노 許美京 독창회

— 3월 19일 예술의 전당

4월 3일 부산금정문화회관



소프라노 許美京(성악81-85) 동문(사진)이 3월 19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과 4월 3일 오후 7시30분 부산금정문화회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許동문은 이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주제로 헨델, 리스트, 모차르트, 푸치니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許동문은 이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주제로 헨델, 리스트, 모차르트, 푸치니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嚴義卿 피아노 독주회

— 3월 27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嚴義卿(기악81-85) 동문(사진)이 3월 27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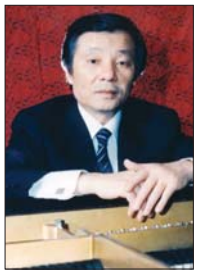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嚴동문은 이날 'I Got Rhythm'을 주제로 슈베르트, 드뷔시, 거쉬인 등의 친숙한 클래식과 재즈 명곡을 준비한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嚴동문은 이날 'I Got Rhythm'을 주제로 슈베르트, 드뷔시, 거쉬인 등의 친숙한 클래식과 재즈 명곡을 준비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제5회 金正圭동문 음악회

— 4월 1일 예술의 전당



모교 기악과 金正圭(기악56-60) 명예교수(사진)가제자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4월 1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음악회를 연다.

洪恩卿(기악79-83)·趙炫秀(기악82-86)·尹錦榮(기악82-87)·이모니카(기악84-88)·李淑美(기악84-88)·金敏廷(기악89-93)·박재은(기악93-97)·徐允晉(기악94-98)동문과 더불어 리스트, 브람스, 로시니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金현지 바이올린 독주회

— 4월 2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金현지(기악99-03) 동문(사진)이 4월 2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마련한다.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 예술의 전당 영재아카데미 강사로 활약하는 金동문은 이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초혼
재혼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2011.10.28)

회장: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5층

521-4405

임페리얼 클럽

호남지사

063)275-7766

2012 4.1~4.30



2012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2012 CHEONGSAN ISLAND SLOW WALKING FESTIVAL

느림은 행복이다

SLOW WALKING

축제홈페이지 www.slowcitywando.com



4/14, 토 공식행사
슬로시티 청산도 느림의 종 제막식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우걷기 축제추진위원회
장소 :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청산여수 슬로길 11코스 42.195km)

 완도군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기간 : 2012. 05. 12(토) ~ 2012. 08. 12(일)]

무역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FTA 활용, Trade NAVI가 함께합니다



TradeNAVI는
수출의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을 형상화한 브랜드입니다.

트레이드내비 Service

Trade NAVI 3대 정보 서비스

세율정보 : 기본관세, FTA 협정세, 감면세, 부가세 등

규제정보 : TBT(무역기술장벽), 해외인증, 환경규제 등

지원정보 : FTA 정보, 해외시장정보, 유관기관 수출지원책, 통계 등

주요 특징

1. HS코드 6단위별(품목별), 국가별 통합검색 지원
2. 최신 무역동향 및 세율·규제정보 상시 업데이트
3. 직관적 UI, 활용팁 등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 규제 분야 및 해외시장정보 참여기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A
* 향후 참여기관 및 제공정보 확대 예정

■ 2011년~2014년간 FTA 체결국 및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
* 2012년 1월 ASEAN, 오프티스, 2012년 미국, 인도, ASEAN, 2013년 중국, 2014년 일본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or.kr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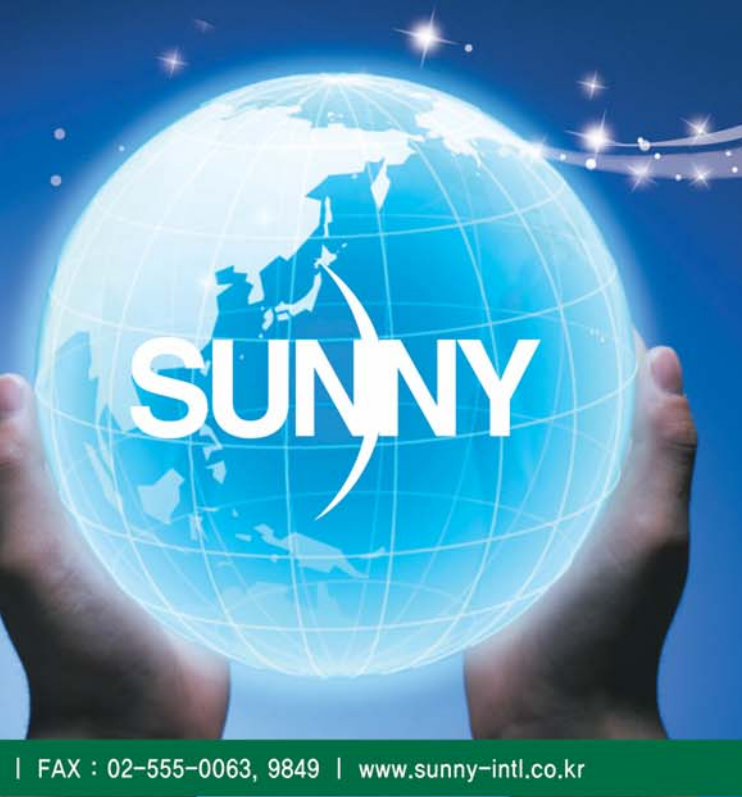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 신탄양물산

태양 물 산

Sunny International Inc.
Sunny Corporation

會長 朴 明 學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1318호 | TEL : 02-555-0062, 9848 | FAX : 02-555-0063, 9849 | www.sunny-intl.co.kr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2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2. 1. 3~2. 15) · 일반 (2011. 12. 30~2. 15)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상임이사

△金旻永 보대원동창회장 = 20만원
△嚴玉鳳 ANMP동창회장 =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두훈 공대78
△김영대 AMP49 △김영철 수의82
△김용운 경영83 △박 철 공대83
△박기순 공대73 △신동주 공대72
△심우섭 의대75 △옥정석 사대72
△이상택 HPM2 △이흥렬 經院70
△장경윤 사대74 △제금련 약대68
△허영재 인문77

(일반) △고영선 HPM26
△고홍섭 치대82 △권부옥 HPM1
△김경현 농대84 △김광수 ACAD62
△김광우 의대07 △김규철 법대63
△김동은 사대94 △김득수 공대69
△김문학 IFP5 △김보리 의대07
△김선형 인문84 △김영아 자연86
△김영홍 인문74 △김용민 농대88
△김정기 치대57 △김종백 AIP43
△김지연 미대07 △김창룡 자연83
△김향숙 약대77 △노화경 간호97
△문지현 공대03 △민영기 자연92
△박근준 상대59 △박상기 ABP20
△박상문 공대77 △박성열 법대92
△박정진 공대84 △박진아 인문04
△박춘원 공대49 △서인석 자연03
△손선익 ALP13 △신철호 경영82
△양희준 FIP8 △엄석진 농대91
△여신영 공대09 △염경택 AMP71

△오상희 공대88 △우영의 문리63
△우종수 공대74 △유환옥 사대78
△윤덕원 공대83 △윤재영 AIP36
△윤정혜 생활74 △윤현준 농대04
△이규준 공대85 △이미나 치대90
△이민영 자연09 △이상현 자연07
△이성묵 농대60 △이성중 공대98
△이수전 치대02 △이승훈 ACAD71
△이윤식 공대79 △이윤희 사대05
△이정란 문리59 △이종규 ACPM8
△이창우 치대91 △임해경 음대77
△장창호 경영85 △전동호 인문87
△정기철 경영97 △정명교 SGS9
△정지원 공대99 △정하걸 AIP45
△정해도 약대76 △정희병 AMP45
△조은형 공대03 △최수경 大院83
△최승락 GLP5 △최용원 인문82
△최준근 공대79 △최중경 경영75
△최홍석 자연05 △한규현 공대99
△한주형 인문04 △허 백 약대50
△현준녀 AMPR20 △황규전 의대74

이 사

◆인문대 △권태우83
◆사회대 △권운구91
◆자연대 △전승준74
◆공대 △박재룡68 △서동원70
△이 선59 △한운섭79
◆농대 △김정규65 △정용문67
◆문리대 △남시욱54 △박혜란65
△서옥식69 △이문규61 △이민섭59
△임석진52 △허영준55 △한기호57
△황정식52
◆법대 △박희문73 △이만석83
△이민찬55 △현재현67
◆사대 △김종필46 △이오봉61

△채미영82
◆상대 △고병우52 △제만수61
◆수의대 △강경선60 △김기흥81
△김용팔75 △박호인71 △이강문60
△하태은80
◆약대 △김동춘55 △남승국70
◆의대 △김동진68 △신 실60
△정경인94 △하일수76
◆치대 △연태호81 △이영대70
△이진규78 △이창우75
◆대학원 △박성호95
◆보대원 △박남용02
◆행대원 △남병홍78
◆ACAD △곽기영54
◆SGS △김영구3
◆HPM △강보영1 △홍성희3
△황영운4
◆GLP △윤여표11
◆SPARC △최홍영11

일 반

◆인문대 △가희창02 △강기훈90
△고종훈88 △국순엽80 △김대환84
△김매리07 △김민지01 △김성호87
△김정호80 △김환국79 △남기학79
△노성환82 △도재문72 △류규현91
△문선호87 △박상연07 △박우현01
△박종택74 △박진우93 △변성수84
△서명관80 △서선령87 △서형배74
△성관정06 △손정현84 △송기국76
△신종진92 △유국환81 △윤대근81
△윤석진88 △이국향85 △이동익98
△이명관81 △이민주06 △이성원83
△이승섭85 △이영인77 △이재선06
△이종필88 △이주영05 △이준호91
△임수근83 △임흥식77 △정용모83

△조용일77 △조형동84 △최광웅82
△최영준94 △최정운93 △허남정77
◆사회대 △강일진85 △권민용86
△김 열70 △김강산01 △김광일74
△김대희81 △김민관97 △김병규05
△김보민96 △김봉주82 △김서유82
△김연진85 △김준상84 △김철기72
△김태동83 △김호일81 △김희철81
△류영기93 △문병성74 △문한성91
△민병덕90 △박근원03 △박상훈87
△박성민94 △박순일00 △박용은87
△박정호83 △박종철90 △박주태85
△박준서80 △배명철74 △배문호85
△서동욱86 △서병일87 △손영수87
△송경모82 △안근배81 △오문석81
△오정일88 △위성일85 △윤선기83
△윤현종81 △이남찬87 △이수전91
△이수형94 △이시은02 △이윤희00
△이재덕73 △이창구73 △이현태96
△임정혁79 △임태규89 △장진우88
△장철호83 △전재범82 △전지혜04
△정구현06 △정달섭81 △정우진95
△정은호80 △정재호73 △조동환82
△조인선97 △진갑현89 △최완근81
△최재혁89 △최창호95 △한지환82
△허인구80 △홍민영96 △홍은표09
◆자연대 △강경관70 △구종석93
△김기표00 △김대환02 △김두현90
△김석진78 △김신우99 △김영찬06
△김옥래94 △김운호02 △김정원79
△김진규78 △김필광05 △노동진89
△노정현04 △박용진05 △박용진99
△박용철72 △박용호00 △박정환83
△백병학72 △사대원84 △소병환93
△양승락02 △오유정05 △이길영00
△이대관04 △이영호92 △이은진08
△이일웅83 △이태림77 △이호성81

△임영익89 △임완중87 △장두원74
△장종만72 △전희진02 △정동근84
△정용준01 △정일교03 △조영길74
△조완제84 △조은비07 △조재린90
△최승주72 △최정석06 △최지한87
△최철호83 △한민현83 △홍지석88
△황동규84
◆간호대 △김기희65 △김매자60
△김영신83 △김진디02 △김채숙66
△박문희59 △박양자60 △염윤정06
△오두남89 △오세영66 △윤미여76
△이미화82 △이선주81 △이현주08
△정현명88 △조결자62 △최선희91
△최영희65
◆경영대 △고광호85 △고두형01
△김선호81 △김원중99 △김지룡83
△김태현06 △류상기78 △민혜원08
△박봉호04 △박주양79 △박찬호83
△변은창90 △송호찬78 △안철환88
△엄승섭87 △윤재민01 △이재우92
△이재혁98 △이준구91 △이철주81
△임정근85 △장기권82 △장보훈83
△정광현04 △정명기82 △정재연07
△최상원01 △최종욱89 △최창묵82
△허일섭73
◆공대 △강달영87 △강성수57
△강영식64 △강영식68 △강영택63
△강용규52 △강창수48 △강춘식55
△강환구75 △경창성65 △고창현64
△고현성85 △공인섭78 △공철규57
△곽기성81 △곽성용77 △권경준95
△권귀석92 △권기정67 △권상익91
△권성주03 △권영선51 △권오규03
△권종은00 △권혁선72 △권혁준53
△김 석93 △김 영52 △김 철58
△김강수03 △김광은63 △김광일81
△김남길61 △김남영69 △김대웅61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

한국남동발전은 청정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놀라운 가치를 선보인 한국남동발전
이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녹색성장의 힘을 전파합니다.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워리더 한국남동발전

ND 한국남동발전(주)
KOREA SOUTH-EAST POWER CO.

△김동국91 △김락성54 △김범석92
△김법규02 △김상문06 △김상수66
△김상용54 △김성기80 △김세영70
△김세준83 △김세진47 △김세환61
△김순민66 △김승현88 △김영권01
△김영상05 △김영진53 △김영찬07
△김영휘52 △김용익50 △김인동80
△김인석55 △김재봉69 △김재수91
△김정우56 △김정원63 △김정인94
△김정철55 △김정혁00 △김정훈03
△김재욱73 △김종윤93 △김종채55
△김종한61 △김주열91 △김주하01
△김준용02 △김준우85 △김진욱99
△김찬식83 △김창욱78 △김천환65
△김철호72 △김태녕86 △김태선93
△김한길85 △김현국90 △김현종71
△김현진56 △김형기66 △김형모54
△김형석99 △김형호98 △김혜수64
△김홍남03 △김홍만89 △김홍수75
△나익택98 △남광문61 △남승윤82
△남원장99 △노동건95 △노소영80
△노한신79 △류무열77 △류철호67
△명치리82 △문종규58 △민병진82
△민태기90 △박광표47 △박국진05
△박권식87 △박규식91 △박두근53
△박민서79 △박세영95 △박용진51
△박원호85 △박의남49 △박일웅08
△박재범84 △박종인97 △박종철06
△박종태61 △박종효77 △박주영03
△박준민99 △박지빈93 △박진진09
△박철규87 △박희전07 △반병문74
△배성준99 △백남식68 △백남주48
△백세흠66 △변정수89 △서익석49
△설재현92 △성운준05 △성윤경09
△성준호04 △손계욱70 △손원수07
△송병륜05 △송선희57 △송슬지05
△송인상00 △송인호91 △송재혁87
△송태을91 △신건학56 △신기조43
△신요안83 △신현국68 △신현욱92
△심용기53 △심창생60 △심풍수76
△안병휘59 △안상순65 △안정호96
△안종린80 △양동률50 △양승철99
△양정웅68 △양종화70 △여태승82
△오경식75 △오서균63 △오승용05
△오신남60 △오영환68 △우경호78
△우상렬52 △우종민97 △우종범85
△원종호98 △원준희49 △위정섭98

△유병욱97 △유봉환56 △유상희58
△유석연87 △유인봉55 △유인섭91
△유준만63 △유홍일00 △유희봉66
△육내승51 △윤남진53 △윤상건73
△윤영찬67 △윤용근81 △윤재준60
△윤혁준86 △이갑연83 △이갑표48
△이경선03 △이경순69 △이경태53
△이경화02 △이광진69 △이규섭57
△이동린56 △이동욱06 △이동욱82
△이명식49 △이상현71 △이석주57
△이성배74 △이승욱05 △이연주93
△이에민46 △이용일86 △이원찬03
△이유진63 △이장희78 △이재순74
△이재흥71 △이정주65 △이정호65
△이주영07 △이준환52 △이지환04
△이진기46 △이태종77 △이태현95
△이학수03 △이현석99 △이형원04
△이호인61 △이화용70 △이화흔74
△이희근55 △임경준52 △임동조71
△임병문58 △임성한89 △임용택55
△임정명58 △임창우64 △장령수99
△장문성95 △장상배82 △장옥룡52
△장응재64 △장재명57 △장재호96
△장정우02 △장철호00 △장홍규54
△전광병74 △전병규01 △전연욱57
△정근영85 △정대환65 △정명진04
△정무진64 △정민하91 △정영근81
△정용근85 △정용원76 △정의석85
△정자철77 △정재관57 △정진수67
△정태영73 △조 만56 △조경규83
△조남일70 △조민식09 △조사홍56
△조선용49 △조승우95 △조용준02
△조용훈78 △조종현46 △조춘식70
△조한모61 △주관정76 △주기만64
△진행섭66 △채수창62 △채정병02
△최 근02 △최광선84 △최규현90
△최도영83 △최상민64 △최성일62
△최세근06 △최영태70 △최우석95
△최종규79 △최종민01 △최지형00
△최창락02 △최창희06 △추성원06
△하성기71 △하영식67 △하종민05
△하태권06 △한광석66 △한병록46
△한선화80 △한용희06 △한충수98
△한현선97 △한현철05 △허 흥58
△홍석환98 △홍성관61 △홍성우03
△홍성재52 △홍순일53 △홍재훈81
△황용희85 △황인준95 △황인호56

△황재웅96 △황정수02 △황정정59
◆농대 △강아영00 △강정일64
△고일성69 △고일웅61 △공민영05
△권정혁60 △권혁세54 △금방용85
△금지현06 △김관선58 △김교창53
△김규식72 △김기철90 △김남현74
△김대경51 △김두만52 △김무수89
△김병윤55 △김봉길89 △김삼식53
△김성모85 △김우석64 △김원수56
△김원훈49 △김재동78 △김재영94
△김재인58 △김재철77 △김정기56
△김정화60 △김진목54 △김진철51
△김택구63 △노진표55 △노홍섭53
△류남렬50 △류충렬74 △민두식54
△민원동65 △박경석52 △박근배75
△박동규56 △박문호82 △박상순86
△박승걸53 △박양문55 △박양혜64
△박완수75 △박용길53 △박윤근55
△박정윤55 △박종국57 △박종민82
△박종우00 △박준식72 △박준호83
△박창호58 △박홍목56 △백상덕59
△백용현64 △서정겸67 △서종혁66
△선우정원81 △설권석54 △손진규82
△송기환86 △송원준84 △송종익55
△신민식57 △신민종79 △신일선58
△심상후81 △심응남05 △심재철57
△양두석51 △양범산55 △양시원02
△양병현84 △연장식84 △오세승53
△오승환57 △오정행60 △오창식91
△우무일64 △우병국75 △우상호59
△우정식53 △유근영54 △유기형53
△유석형58 △유세현79 △윤백훈75
△윤상렬57 △윤성준88 △이건우52
△이경용53 △이광선57 △이기순69
△이달문62 △이두철81 △이두환75
△이병근67 △이병하55 △이병현59
△이병호82 △이상지56 △이선진69
△이성수67 △이성주83 △이세영95
△이세표55 △이승찬65 △이시규73
△이영문52 △이영지61 △이영호68
△이우인78 △이종구53 △이종기55
△이중훈48 △이지형64 △이진호57
△이진희81 △이춘병36 △이태윤03
△이택원52 △이한승89 △이현우51
△이홍복56 △이희영50 △임명미59
△임무상59 △임성만84 △임성자77
△임영준67 △임종완04 △장낙연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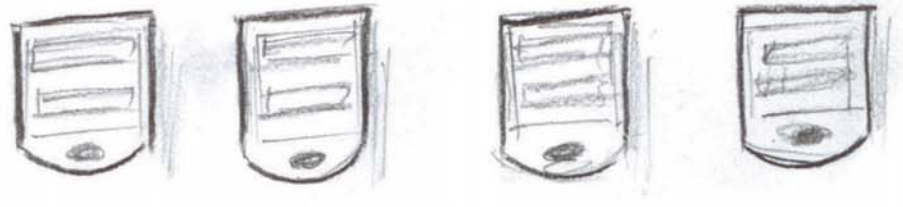
△장성구73 △장운용51 △장인권81
△정무남62 △정민현55 △정세진70
△정용화86 △정인무53 △정조래57
△정진국68 △정태수81 △정필수66
△정해영66 △조규열52 △조상기83
△조성진48 △조영래82 △조한보48
△조한욱53 △주민영88 △차영준51
△천정웅62 △최동아06 △최병영75
△최성환62 △최송웅60 △최영일46
△최용현80 △최원개50 △최은순78
△표한승99 △하 원82 △하유미84
△한상복54 △한상욱55 △한성식58
△한용규99 △한찬택52 △한춘연52
△허문화90 △허정수60 △허정화72
△현호연53 △황병순04 △황인엽74
◆문리대 △강석명56 △강영원70
△강학철55 △강희조55 △공대식50
△광광수59 △권기선54 △권병수66
△권태승55 △김경환55 △김광규60
△김근호56 △김남기64 △김명정64
△김순섭57 △김영식64 △김옥민51
△김용권50 △김용남63 △김용웅64
△김일승63 △김주태53 △김준기61
△김치근53 △김태욱58 △김학종54
△김형련66 △김흥수57 △노영찬49
△도태균63 △명동원71 △문 용49
△박관운56 △박대일61 △박상우58
△박애주47 △박재만54 △박종민54
△박진하48 △박창고59 △박태룡56
△박형달55 △박희봉48 △방재환66
△배광선66 △백영근55 △백제현48
△변창명56 △서병철59 △서인수50
△서일환55 △서정태55 △서창모61
△송병희51 △송연달67 △송인찬59
△송하영58 △신섭중52 △안상경54
△안석주61 △안승원68 △염태호59
△오인환58 △오임철52 △온준철64
△우성식71 △우창웅52 △윤용달65
△윤임구61 △윤하정47 △이 강56
△이 순55 △이 윤61 △이규일53
△이달형54 △이대일56 △이도영56
△이성재59 △이수호49 △이승만62
△이양길60 △이영식51 △이영준67
△이영훈65 △이정덕55 △이정숙53
△이정주55 △이주형65 △이택주66
△이평우48 △이해정48 △이현기54
△이혜봉62 △임동규55 △임흥빈58

△장갑석53 △장덕주55 △장화순50
△전대식53 △전석홍54 △정 탄65
△정기호50 △정삼윤64 △정서웅62
△정지식61 △정태훈53 △조계찬47
△조규광48 △조병연54 △조용주67
△주석순48 △차기벽46 △차상철65
△채경숙64 △채홍기71 △최 흥66
△최동환49 △최봉석69 △최성규60
△최연상56 △최원우65 △최희승60
△한박무66 △한창호65 △허두표60
△홍승표59 △홍혜숙68 △황연익57
△황하복56
◆미대 △강대운55 △강용기94
△강찬성86 △김경수56 △김경숙63
△김남용90 △김선미88 △김용환85
△김지연07 △김희춘62 △민병목55
△박상민61 △서원영85 △안종배91
△이근택87 △이재호04 △이주현98
△이환범73 △장정학60 △장혜진01
△전경미02 △정규현02 △정영조55
△정정자60 △조 윤59 △허수영91
△홍현중04
◆법대 △강영균84 △강인현56
△강태형57 △강형중84 △강희철90
△고문승56 △구자순53 △구충희48
△권지용48 △김 옥86 △김광현54
△김국진60 △김길영51 △김남진51
△김래니88 △김명중85 △김명진74
△김무길59 △김민정03 △김범수82
△김병구64 △김병호82 △김봉환61
△김복지48 △김상태48 △김성엽83
△김세중82 △김순규58 △김시영71
△김영균52 △김영삼61 △김영환62
△김윤택50 △김응완55 △김응우85
△김의환81 △김일덕56 △김재규57
△김재기68 △김정기75 △김정일97
△김종률81 △김종준86 △김준호52
△김창근51 △김철용54 △김현수01
△김형렬83 △김형순79 △김희수80
△김희용60 △노경국02 △노명준57
△노영구51 △노훈건62 △도정환83
△류재신48 △명노연98 △문택상50
△민병권83 △민병환86 △박 민96
△박광천81 △박광호04 △박상우75
△박상형48 △박성규89 △박성진84
△박승준80 △박요찬81 △박우영54
△박진우92 △박창훈78 △박천서56



www.sericomput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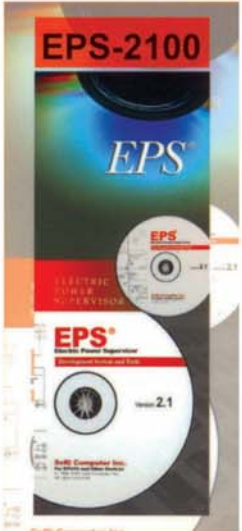
Energy Management R&D Company



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
Instrument



EPS-7200
Instrument & Control



EPS-2100

SeRi Computer Inc.
EPS[®] registered trademark of SeRi Computer Inc.
since 1998, **SeRi Computer Inc.**
Tel : 02-848-1480 / Fax : 02-2109-6448

△박해봉83 △박형남78 △반성우53
△방인걸85 △배기열82 △배상오55
△배정훈07 △백 린59 △백대현50
△백덕열67 △백보윤61 △백세웅64
△변재승60 △서동희80 △서영덕57
△석광세59 △석재명95 △성순경54
△손상민02 △손우창94 △송경숙91
△송기영69 △송민호55 △송상규84
△송세빈81 △신상갑53 △신원도87
△안남규50 △안병익88 △안재식57
△안재영70 △양승국77 △양승상56
△염동희49 △오성진83 △오정돈79
△오종권65 △오치룡65 △오행석04
△원은섭63 △유광현69 △유영상81
△유재성59 △윤상목52 △윤성근78
△윤장석89 △윤재승81 △윤정경55
△은현호87 △이 흥62 △이강수53
△이대공60 △이동렬68 △이백규83
△이상근74 △이상용67 △이상지63
△이순기03 △이승주05 △이승환55
△이승훈80 △이영의59 △이용관99
△이우철67 △이재복05 △이종주85
△이종환59 △이준규72 △이지영98
△이창범53 △이채주53 △이철승78
△이태윤05 △이하우58 △이형진81
△임대규74 △임승관70 △임종식79
△임창원64 △장 호67 △장동완64
△장명관51 △장상재55 △장지용97
△전병덕47 △전용희81 △정 철59
△정덕모75 △정동현99 △정선태75
△정세욱56 △정용달81 △정의식83
△정종현60 △정지태58 △정혜경 03
△조남현54 △조병선57 △조성일61
△조성제85 △조영목02 △조영삼81
△조왕제55 △조인제90 △조주순61
△조혜녕61 △조훈갑00 △주경진55
△차진태03 △채의석57 △최강섭78
△최귀인56 △최상원82 △최석문86
△최영룡78 △최원빈53 △한 경79
△한동우66 △한상근02 △한상태56
△함민식59 △허 근49 △허승태73
△현종찬74 △현휘남57 △호영진56
△홍기인55 △홍성인58 △홍성필89
△황도연52 △황성일56 △황운영55
△황재성64 △황정열85 △황찬홍65
△황철규83 △황활웅67
◆사대 △강길선57 △강민경03

△강순규76 △강신희53 △강양희57
△강은지07 △강장완58 △강현재72
△고다영05 △고병철61 △고준식51
△곽지훈77 △구사용51 △구양언60
△김 탁52 △김계연68 △김광운73
△김광준67 △김길순61 △김대현80
△김동균63 △김두정73 △김미정83
△김봉민53 △김상욱47 △김성진53
△김수연87 △김수자68 △김순신51
△김승배80 △김영준73 △김영철64
△김용복57 △김용승96 △김재성79
△김재은50 △김종두97 △김준한61
△김중호60 △김지수88 △김진원56
△김진후74 △김창걸56 △김창경61
△김천수81 △김학찬62 △김형구56
△나고찬52 △나동진66 △남규욱43
△남기경58 △류은선87 △목영부54
△박갑순52 △박광채85 △박규홍69
△박나영03 △박노학50 △박병윤65
△박순애50 △박승환53 △박영목56
△박영숙41 △박완규80 △박은실02
△박인식48 △박장순52 △박종근60
△박종대71 △박종식74 △박전배74
△박한기99 △박희웅65 △변영희66
△변재용59 △서덕현69 △서윤수48
△서인경51 △서태근56 △석경징60
△석용징77 △성기종54 △송동수67
△송복주53 △송영훈91 △송은경06
△신동로66 △신문섭60 △신승기83
△신용국55 △신철수57 △신철지60
△신흥균58 △안광화63 △안석로53
△안재석86 △안정훈99 △안종민53
△오범호93 △우상혁56 △원인순85
△유기동65 △유기웅59 △유병섭82
△유완수55 △유화연59 △윤기동56
△윤석오64 △윤성원57 △윤종상52
△윤희숙57 △이강법57 △이규식58
△이남규58 △이동욱69 △이병준03
△이상욱51 △이석주56 △이성구64
△이승이90 △이영윤58 △이목순54
△이완식61 △이용우55 △이우식56
△이윤우64 △이은희92 △이재근43
△이정태55 △이정태70 △이종덕60
△이종순52 △이종연63 △이주환67
△이창호71 △이채규66 △이태현82
△이현규62 △이호상57 △이환배54
△이흥종54 △이희명49 △임장규58

△임찬희78 △장정현78 △장제흥55
△전래수52 △전쌍식87 △전종윤67
△전택수71 △정광훈00 △정동화53
△정두현60 △정문환56 △정상호67
△정수목76 △정은호59 △정의포70
△정재도82 △정하경80 △제옥례33
△조의래56 △조익선40 △조정제53
△조철원55 △조혁증78 △조현철92
△조희식54 △진원우72 △진패현56
△최계숙52 △최방지59 △최병호57
△최생인53 △최승환56 △최연경06
△최용섭54 △최우식03 △최은자85
△최정림62 △최희주52 △히병권53
△하영준56 △한상순46 △합희동46
△현영희57 △홍운표54 △홍인기54
△황기탁49 △황남택64 △황석근51
△황세열49 △황적륜54
◆상대 △강경만54 △강경수55
△강용운61 △강좌희55 △고을상51
△곽 규51 △권영목54 △김경렬53
△김경원58 △김남택62 △김병기54
△김병식68 △김봉한44 △김상렬64
△김상은53 △김연조56 △김영무56
△김영섭66 △김은수50 △김인기52
△김장현54 △김재수58 △김정삼59
△김정환60 △김종원56 △김주호50
△김진호50 △김진화58 △류태환48
△문무상54 △문영지55 △박경석53
△박기환61 △박대평55 △박복양44
△박봉흙68 △박상호63 △박영우58
△박종환49 △백기덕58 △서규상53
△서병태63 △서재진60 △성백규52
△손명환61 △손홍규51 △신광규55
△신후성55 △심문섭54 △심소일49
△심찬순58 △안영목57 △안희중59
△오기화57 △오맹선53 △오상봉70
△오세환68 △오우현55 △오장환54
△우상섭53 △유대진51 △유병규54
△유병인58 △육무수53 △윤가현52
△윤길현52 △윤여훈67 △이 연59
△이강천71 △이건희56 △이규찬55
△이근석51 △이동훈50 △이병국52
△이봉길58 △이석순54 △이성열69
△이성재53 △이순화64 △이승균55
△이영순64 △이영주53 △이용기57
△이희준49 △인수환54 △임영식57
△임한석59 △장기남61 △장동수58

△전수영57 △전인홍54 △정문화71
△정인성71 △정재창58 △정종식69
△제정요57 △조 원56 △조재환72
△조현택70 △진영보48 △진영수63
△채규원51 △채동호65 △최병로49
△최석철56 △최성환56 △최익재68
△최인학59 △하명근66 △한영국50
△한익수53 △한희영49 △허 석59
△허재경56 △현임종56 △홍구희57
△홍순대55 △황금학60
◆생활대 △강은영84 △구명진05
△김나연94 △김명경83 △김민정05
△김보람98 △김성희69 △김옥련58
△김옥자58 △김운정93 △김정주56
△김정희76 △노미라88 △문영보72
△문혜정92 △배수향90 △배순영85
△서병숙55 △염윤경78 △오경숙82
△윤승건05 △이아름05 △이영선05
△이창배57 △임인순58 △전주리03
△정광호57 △정선영06 △조규연58
△채미희77 △황덕순72
◆수의대 △강구환74 △권순기57
△권순현76 △권순호53 △김남식83
△김남훈87 △김배원60 △김선일63
△김영무60 △김정오62 △김종건65
△김종태64 △노병의61 △노상석65
△박내정63 △박만택52 △박응복48
△서강문82 △송도영78 △송치용83
△신현덕80 △양재만91 △여중원65
△오순민81 △원병희60 △유승창63
△유시영83 △윤석정61 △윤영원63
△이 완82 △이강훈58 △이경환60
△이덕주60 △이호원66 △전원표56
△정용면53 △정운섭55 △정지영84
△정태규56 △조동진86 △조명래70
△조수식52 △조종기91 △홍두표55
△황병주57
◆약대 △강내영82 △강삼식65
△강석훈04 △강순철59 △김규형53
△김기현52 △김만극47 △김미희84
△김삼영58 △김양오60 △김원보53
△김용길64 △김은영89 △김일성60
△김재성69 △김정숙69 △김정화57
△김진형88 △김학균51 △노일협45
△맹호영81 △박문기47 △박선희09
△박성주77 △박은유83 △박지인00
△백희정07 △변은자51 △서남현59

△손우성93 △송문정90 △송승희99
△안양찬53 △오병무62 △우재성71
△우제안57 △유도봉66 △이갑열53
△이동약57 △이만재56 △이석구62
△이원재53 △이일영56 △이재현45
△이재현77 △이재호72 △이종화55
△이한이03 △정근배61 △정동원53
△정상철52 △조승희87 △조양래72
△조우상56 △지상구54 △전길순52
△최병균52 △한은아91 △허 용47
△홍은기57 △황의성61
◆음대 △권혁남58 △김경목74
△김상원87 △김숙이73 △김영숙55
△김은경57 △김태경86 △김현이82
△김형규60 △나석주00 △박성진02
△박정임73 △방통일72 △서수민97
△성양지60 △송인정95 △신혜주76
△안성준65 △엄미연96 △오동일54
△유화자59 △윤이근74 △이규용78
△이신희70 △이영민01 △이영자56
△이윤정04 △이준성81 △이지영87
△장진선06 △장창환58 △정혜연02
△지철우88 △차세정95 △한혜자61
△홍승현81
◆의대 △강정후70 △고종현74
△김범용53 △김상수87 △김영태65
△김용진69 △김우영43 △김원희56
△김진영50 △김창석85 △김한섭44
△김현경99 △김현진87 △김희정07
△남궁견67 △박상철67 △박용수85
△박용화55 △박재홍80 △박한철53
△박현승77 △박훈영71 △백민기43
△변창세69 △성송기90 △송민성80
△심심은91 △심재성05 △양솔문00
△염용태58 △오경백70 △오민구76
△오세열81 △오용상길58 △원세재46
△유정주05 △유종근71 △이 희68
△이방제57 △이봉화75 △이상림46
△이상윤96 △이승원97 △이은혜74
△이재화06 △이종혁55 △이준석96
△이진오58 △이하길51 △이훈용72
△이훈훈05 △임형석81 △장수진06
△장운삼45 △장준우87 △전예근46
△정범영94 △정요한51 △정혜철76
△조성근47 △주원식76 △주정화52
△주진순43 △진홍용70 △채희복85
△최관흙52 △최덕영58 △최수용07



서울대총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용석82 △최혜령03 △한국남96
△한승석01 △한예택50 △한인교66
△함돈일84 △홍순원49 △황순욱72
◆치대 △강신구65 △강인희77
△강호경53 △고영석68 △구옥경62
△권오균71 △김교식72 △김규순68
△김기수78 △김두현58 △김만석56
△김병국54 △김병수84 △김상세60
△김선해74 △김성범04 △김연만55
△김용철63 △김원경82 △김정규59
△김정기57 △김진현55 △김창희62
△김태일75 △김택근58 △김현태76
△김희철77 △나병선69 △류홍렬77
△박건배70 △박기호57 △박흥규71
△백경동86 △백승진75 △백위현66
△석광덕67 △석정인81 △손영경86
△손호현70 △송병욱65 △안복훈80
△안진수05 △양철호87 △염경철61
△오기환53 △오인식56 △용도택67
△유동수52 △유치린58 △윤경호58
△윤봉윤79 △윤임도72 △윤철민82
△이병윤53 △이봉호86 △이석근90
△이원철63 △이준기55 △이정룡70
△이한규92 △장기산57 △장동재79
△전영섭60 △전훈식59 △정관서79
△정상일91 △정철표74 △조경석79
△조광현70 △조한준53 △차만희57
△최낙준72 △최명후88 △최승훈81
△최진규87 △하국봉81 △한건웅61
△한성희92 △허정규62 △홍현종82
△황 준63 △황성림86
◆대학원 △강우식83 △곽영세86
△김상호81 △김석기03 △김인배68
△김재웅72 △김종수79 △김진수83
△남재국88 △류병관89 △모수미75
△박영수94 △서상혁79 △양기주95
△양덕권91 △오문성84 △오진욱92
△오형재79 △윤민재90 △윤제범82

△이경희90 △이효수84 △장인정81
△진정훈93 △최인수85 △토카이03
△한상서95 △한성수80 △황인자78
◆교대원 △김성기94 △변정숙64
△정월용73
◆국대원 △강민정05 △김운식03
△박지훈05 △유석원03
◆경대원 △고창석71 △김성준92
△박정남69 △박정수93 △이영희67
△최갑석72
◆MBA △정성훈07
◆보대원 △김남주66 △김운서72
△김윤주89 △김은옥02 △김종만62
△김좌상60 △김학기76 △문성환95
△박남영59 △박주홍86 △박천봉72
△반정욱60 △서석권64 △서은하96
△오병근88 △윤지선04 △이민희74
△이영현08 △이용성73 △이지은06
△이한규69 △임인수84 △정건작87
△정준영66 △허인남80
◆사대원 △전도영68
◆신대원 △김기도72
◆행대원 △강남구08 △강성원68
△공병영90 △김석규92 △김진근08
△노선호68 △박재석71 △박정훈59
△박찬도64 △설근태88 △엄현희82
△유필우75 △이종련66 △이주석84
△이충열95 △임종섭77 △정강정85
△조경규87 △조미진05 △최종술75
△푸름수령08 △허성두71
◆한대원 △강덕원85 △김경대83
△김기전84 △김성준82 △김인근84
△김정아94 △인승홍94 △양수정92
△유철상77 △윤종식89 △윤화일79
△이정미01 △이필수77 △채승기81
△최 준94 △최준호89 △최형식85
△황용운88 △황익수03
◆AMP △가갑순18 △강동한68
△강제문42 △권혁중5 △김 호55
△김광현55 △김교철25 △김구섭66
△김배호52 △김선홍14 △김연수66
△김영광65 △김용수15 △김응열25
△김정환15 △김정국14 △김중성39
△김중현49 △김진배57 △김치곤7
△김택동68 △문동환71 △문민수32
△문정국31 △민경서48 △민명술42
△박달용4 △박봉진70 △박인종23

△박중서11 △박학경47 △방상우31
△백문현25 △서근석16 △손수달37
△송문호38 △송병진44 △신용문68
△신우식24 △신중규4 △심갑보3
△심계진36 △심행진16 △안영복1
△안치현31 △염병만71 △오연수4
△오형근48 △우상우18 △우재영7
△이규식54 △이병달28 △이성길34
△이승준69 △이승휘49 △이시용31
△이영주5 △이영태35 △이원구50
△이준환69 △이찬복67 △이태섭5
△이한규23 △이행기48 △이호수35
△임창섭14 △장기흥8 △장영섭14
△장철수13 △전동근11 △정 열14
△정규열59 △정석재61 △정일기35
△정희원60 △조내벽31 △조문규51
△진홍균9 △최대업31 △최병면41
△최병택6 △최영철20 △최종명14
△최종원16 △홍승표68 △홍종갑56
◆AIP △강인순9 △고형석21
△공소열13 △곽상욱30 △구영현12
△권영익19 △권오열22 △권혁전44
△김상진31 △김수기14 △김일수14
△김주근3 △나기환22 △문규원10
△문동인40 △문일권39 △박인서12
△성필선36 △심영복38 △오 현5
△유각목5 △유창열40 △유준종14
△윤백중4 △윤종선45 △이갑순9
△이봉훈36 △이석원36 △이현희15
△정일재3 △조일래41 △차정웅18
△최일문35 △최정남22 △한욱문45
△황이남22
◆ACAD △강경보20 △고세일32
△김광수62 △김덕영18 △김부근31
△김상렬58 △김승영43 △김영수69
△김영준31 △김진섭38 △김태환38
△김형준47 △김홍민72 △노정기36
△류근환13 △박기철39 △박남신70
△박명서27 △서대일37 △서정만18
△성시철55 △손풍삼21 △신정수12
△안승우38 △여익구59 △유병국30
△윤준근13 △이강연27 △이경영7
△이경환64 △이교용40 △이상호71
△이연수72 △이윤희18 △이학동44
△임대환69 △임충규45 △정동우6
△조강호37 △조남조15 △조옥식16
△진인권28 △최병길11 △최봉인31

△최원식72 △최재승38 △최종구62
△최철규68 △황상모66
◆ABP △김수동32 △김영근15
△김원현6 △마호영32 △박귀남28
△박인규10 △양병기30 △연기현28
△유충열29 △이상락4 △이수연23
△임경상9 △전안희20 △조용호34
◆SGS △김기문26 △남궁근16
△민상금1 △신경근27 △유금종3
△이영강24 △임영화27 △정근수24
△정인숙26 △정평화6 △정해순3
△정휴병15 △최병진20 △허성호26
△황정식2 △황종현18
◆CHON △예숙은11 △정경란8
◆APC △손일근3 △안무경4
△조성구7 △조성출5 △하정호8
△한길호4
◆HPM △권부옥1 △권자남5
△김병민25 △김일용6 △김중기21
△김현수2 △김홍규12 △나호준27
△박동호26 △손규호11 △심준보26
△양동근12 △염금량14 △이규진14
△이난영26 △이석태23 △이은정14
△이주국2 △정유석27 △최봉영22
△최창욱14 △황경수23
◆AMPP △김종대4 △방석관1
△이영석5 △이종만5 △장필순10
△홍석우9
◆AIC △구자영10 △권오열7
△김영식29 △김인기2 △민홍식23
△박명희14 △박철민31 △배대현25
△윤재영7 △이규전31 △임상선31
△한기식27
◆AFB △강희갑11 △김명중10
△김수호9 △김재명10 △김호운4
△박 연11 △방주득11 △백옥석5
△손수근8 △송민선11 △오수연11
△우용석9 △이상일2 △이영두9
△이용택11 △이진선1 △정일진10
△최동진11 △표재홍9 △홍경래11
◆AMPFRI △김복엽23 △김상철4
△김일동8 △김정주2 △박용철4
△배명섭9 △신도범7 △유영기23
△이규태14 △이우규26 △이종무11
△이춘희9 △이태갑14 △정지택3
△조형찬11 △주영주26 △천병기19
◆ACPM △김락중6 △김범용6

△김수용7 △김창환5 △문동호8
△민평기4 △박현일8 △이동찬8
△이희복8 △전혜선6 △최운성7
△최종찬8 △하용환5
◆FIP △김성하6
◆GLP △강대구9 △강병섭21
△강호길23 △김병윤16 △김옥정10
△김원철15 △김일연11 △김창승21
△김태화11 △김형일17 △김형중17
△마명욱23 △박세연20 △방관수23
△신현운21 △심상운14 △오범석20
△윤경상22 △이동향9 △이용문17
△이용섭18 △이정우13 △임재묵9
△임종호11 △정인태11 △정학섭15
△조준희22 △차화철12 △최민중12
△최승락5 △최윤석15 △최진철18
◆ALP △김중희13 △문종복13
△문훈숙12 △박정수11 △이병철7
△이승림11 △이정재8
◆SPARC △강도영10 △구재홍9
△권세원16 △김유경2 △변상남10
△유성택16 △이덕록7 △정무신5
△최광종6 △황 철7 △황보석1
◆AFP △박수환7 △이성수3
△이성열3 △조동일8
◆ASP △강영재16 △문점수21
△배동기20 △성순경10 △송희원10
△염조일15 △한덕수9
◆IFP △김문학5 △김용배2
△박종화2 △이승득1 △정재성2
△조진영4 △최귀학3
◆BCP △강예규7 △오영호2
△최성원2

분 담 금

◆필리핀지부 1백만원
◆태국지부 50만원
◆멜버른지부 30만원

1 월 계 : 37,248,500원
평생회비 : 29,530,000원
입 회 비 : 130,000원
총 계 : 68,708,5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추가 납부 및 수정자〉

◆1천만원
△이의숙(사대56)

아시아 최초의 체험형 모자 테마랜드
루이엘모자박물관

세계의 전통모자에서 현대 모자까지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교육적 전시 뿐 아니라 디자이너모자의 판매, 휴식 및 모자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을 통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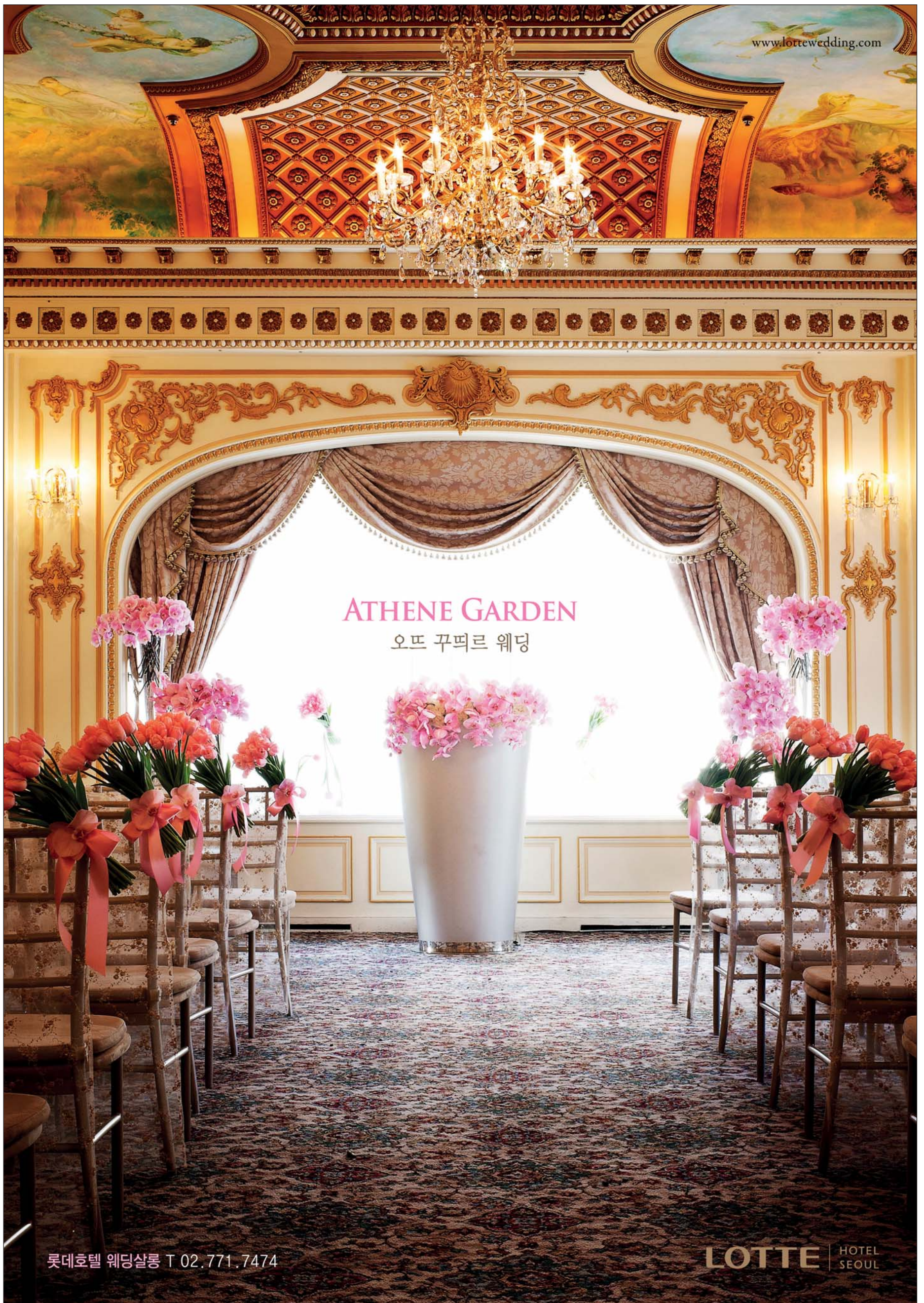
SHOP 삼청점/화동본점/신세계백화점강남점/신세계백화점본점/인사동점
전주모자박물관점/대구대백프라자점/일산점/의정부점/제주신라호텔점/일본제국호텔



루이엘모자박물관
대표 조현중

서울office, www.luielle.com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35-1 백월빌딩 3층 TEL.02-720-6901 FAX.02-720-0497 모자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7번지 TEL.063-283-5454 FAX.063-283-0550 www.Lhcc.kr



롯데호텔 웨딩살롱 T 02.771.7474

LOTTE HOTEL SEOUL

라이언 카샤는 IQ 43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학과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라이언 카샤는 비록 꼴찌였지만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그가 1등인 거죠...

꼴찌가 행복해야 1등 세상이기에

모두가 1등 이 되는 세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교과서 최다 합격!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www.chunjae.co.kr